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Nice to meet samyang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차별화된
약물 전달 기술의 첨단 신약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37호 목차 —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의 호남순력과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2
김봉곤(원광대)

존심양성(存心養性)이 곧 사천(事天)이다 26

하서 김인후의 서예(書藝) 29
유지복(전주대학교)

노자(老子)의 리더십 59
초헌관 민영돈(조선대 총장)

인촌(仁村)선생의 청년정신 61
리훈(인류학 박사)

도문상종(道文相從)하며 상호간에 오고감 63

— 알림 —

1. 방명록에 새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 강연회나 필암서원 춘추향제에 나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는 3만 원이며, 연회비는 5만 원입니다.

·전화로 신규 가입을 신청하실 경우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농협 351-1175-2599-63)로 입회비 3만 원을 입금하시고 김재수(010-2705-6395)에게 전화나 문자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⑦ 현직 또는 경력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의 호남순력과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김봉곤(원광대)

1. 머리말

조선시대 정치에 있어서 16세기 전반기는 호남사림이 두드러진 시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15세기 말 성종대에 나주의 금남 최부, 영광의 지지당 송흙 등이 조정에 진출한 이후, 16세기 초 중종 대에는 기묘사화로 타격을 받았으나 광주의 놀재 박상과 설강 유사, 나주의 송재 나세찬과 금호 임형수, 국재 오겸, 해남의 미암 유희춘, 석천 임억령, 창평의 석헌 유옥, 태인의 일재 이항, 남원의 사제당 안처순과 유현정황, 장성의 하서 김인후, 담양의 면양정 송순, 화순의 학포 양팽손, 광양의 신재 최산두 등 수 많은 인물들이 조정에서 활약하였고, 을사사화 이후로도 광주의 고봉 기대승, 재봉 고경명, 나주의 송천 양응정, 건재 김천일, 근재 정개청, 남평의 동암 이발, 경연 이길, 창평의 송강 정철, 고암 양자징, 옥과의 유팽로 등이 뒤를 이어 명종, 선조 연간에 조정과 지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따라서 15세기 말은 호남

사림 태동기, 16세기 초 중종 대는 호남사림 발전기, 16세기 중엽 인종, 명종, 선조 대는 호남사림 전성기라고 할 있다.

이러한 중종대 호남 사림의 성장과 관련되어 뺄 수 없는 인물이 1519년 전라 김사로 부임한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과 1543년 부임한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1499~1547이다. 모재는 1519년 전라관찰사로 부임하자 송사를 다스리는 한편, 소학과 향약을 널리 보급하였고, 많은 인재를 발탁하였다. 규암 역시 모재의 뒤를 이은 사림의 영수로서 호남사림과 관계가 깊다. 모재는 1543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곳곳을 순력하며 수령의 현부를 살피고, 교화를 펼치며 덕행에 뛰어난 인물들을 발탁하였다. 하서 김인후는 모재 김안국으로부터 직접 소학을 배웠으며, 후일 문과급제와 조정에 출사하였을 때 모재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규암 송인수와는 같은 호당 출신으로서 자주 만났고, 규암이 전라관찰사 때에는 옥과현감이 되어 규암의 호남 교화를 적극 도왔

다. 하서와 모재와의 관계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 있기 때문에,¹⁾ 본고에서는 규암과 하서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중앙에서 규암의 호남사림과의 교유를 살펴보고, 이어 규암의 순력과 정에서 유교적 교화나 인재발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규암의 호남사림과의 교유

규암의 일생에서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것은 매우 특별한 비중을 차지한다. 호당은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 독서연구기구로서 세종 때 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도 호당에서 사가독서를 하였다. 규암 당시 호당은 1517년 이래 중랑천이 한강과 합류되는 지점인 두무포豆毛浦에 있었다. 풍광이 좋고 독서하기 좋은 곳에서 국가에서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도록 하고, 독서가 끝나면 홍문관 등 요직에 임명하였기 때문에, 호당에 선발된 것은 대

단히 명예로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호당에서 함께 글을 읽었던 학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조직하여 독서를 격려하고 서로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규암도 1521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2년 뒤인 1523년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로 옮겨지고 호당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게 된다. 이때 규암은 백운동서원을 세운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과 함께 사가독서하였으며,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²⁾

오늘날 고궁국립박물관에는 1531년 때 만들어진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가 있다. 두무포 일대의 산과 강변, 독서당이 바라보이는 한강에서 관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가에는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을 그렸고, 강 가운데에는 의관을 정제한 계원들을 태운 큰 배에 술동이(酒甕)가 실려 있으며, 그 옆 작은 배에는 술동이를 따르게 하고 있다.³⁾

하단에는 계획에 참여한 12인의 인적 사항과 관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규암을 비롯해서 장옥張玉, 홍서주洪叙驎, 허자許

1) 김봉근, 『김인후의 절의와 도학 _ 맑은 물 위의 연꽃, 엄동설한의 송백』, 『필암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9.10.

2) 『圭菴先生文集』卷4, 年譜, 中宗18(1523), 先生25歲.

3) 윤진영, 『조선시대 계획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142-145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磁, 임백령林百齡, 송순宋純, 주세붕周世鵬, 이림李霖, 허항許沆, 신석간申石澗, 엄흔嚴昕, 최연崔演 등 1516년부터 1530년까지 동호에서 사가독서한 인물들의 계획 참석

자들의 호, 성명, 자, 본관, 생년 등 인적 사항과 사마시의 급제 연도, 문과급제 등 과거합격사항, 현재의 품계와 관직이 관계官階(벼슬의 등급)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 임백령, 송순은 호남의 걸출한 인물들이었다.

하서도 10년 뒤인 1541년 4월 호당에 뽑혀 독서하게 된다. 간재良齋 최연崔演, 십성당十省堂 엄흔嚴昕, 추파楸坡 송기수宋麒壽, 송재松齋 나세찬羅世纘, 국간菊圃 윤현尹鉉, 죽계竹溪 임열任說, 지산芝山 이황李滉,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우암寓庵 김주金澍, 상덕재尙德齋 정유길鄭惟吉, 금고재汲古齋 이홍남李洪男, 호학재好學齋 민기閔箕, 담재湛齋 김인후金麟厚 등 13명이다.⁴⁾ 하서선생 문집 연보에는 신축년(1541) 4월에 휴가를 내려 호당에서 독서하였으며, 그해 10월 홍문관정자 겸경연전경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었다고 전하고 있다.⁵⁾

규암은 하서가 사가독서를 마치고 홍문

4) 羅世纘, 『松齋先生遺稿』卷4, 附錄下, 「附湖堂修稷錄」.

5) 하서도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하였으므로, 의당 한강가에서 계획을 하였을 것이지만, 독서당 계획도는 전해지지 않고, 대신 1531년 사마시에 동방급제한 인물들이 1542년 도성 밖에서 계획을 연 「연방동년 신묘조사 계획도(蓮榜同年辛卯曹司契會圖)」가 전해진다.

수직으로 치솟은 산봉우리와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를 관망하기 좋은 언덕 위 빈터에 의관을 갖춰 입은 선비들 7명이 옆에 술통을 나누고 나란히 앉아 옛 정을 나누고 있다.

그림 하단에는 이들이 정유길(鄭惟吉), 민기(閔箕), 남응운(南應雲), 이택(李澤), 이추(李樞), 김인후(金麟厚) 등 7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관으로 복귀하던 즈음인 1541년(중종36) 11월, 성균관대사성에서 사헌부 대사헌에 올랐다. 그의 나이 43세였다. 그는 조정의 관료 중 나이가 같은 인물들과 함께 동경계同庚契를 맺고 나서,⁶⁾ 남산의 묵사동墨寺洞에 있었던 성희안의 옛 집을 빌려서 거처하였다. 도성과는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골짜기에 있는 집이었다. 독서와 깨끗한 생활을 좋아하였던 규암이 대사헌을 맡으면서 조정의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성에서 멀찌감치 집을 잡은 것이리라. 이 때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 1515-1588이 찾아오자, 규암이 7언 율시를 지어 다음

과 같이 사례하였다.⁷⁾

옥 같은 사람 달빛 타고 그윽한 거처 찾아와
 玉人乘月訪幽居
 사림문 밀치니 나무 그림자 성글도다
 柴戶推來樹影疎
 산에서 빚은 천일주 잠깐 독을 여니
 山釀暫開千日酒
 소반에 안주로 우연히 문어를 얻었네
 盤肴偶得八梢魚
 시 지어 굳이 시속을 놀라게 할 필요 있으랴
 枉詩不用傳驚俗
 맑은 이야기가 독서보다 좋은 즐 이제야 알

이 중 정유길은 동호 독서당에서 함께 글을 읽었던 벗으로서, 명종 때에 퇴계의 경학과 함께 하서의 문장을 당대 최고로 평가하고 조정에 등용할 것을 건의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림 좌측 상단에는 하서 김인후가 지은 화기(畫記)가 적혀 있다. 김인후는 십년 전 소과에 합격한 친구들이 대과에 올라 모두 한자리에 모인 기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진사에 동방한 당년의 선비들이	衿佩當時一榜歡
십년을 전후하여 대과에 올랐구려	科名先後十年間
벼슬길 함께 가니 새로 맺은 벗이 아니오	朝端共路非新契
맡는 구실 다르지만 모두 다 말단일세	都下分司各未班
만나는 자리마다 참된 면목 못 얻어서	隨處未開眞面目
한가한 틈을 타서 좋은 강산 찾아가네	偷閒須向好江山
진세의 속박을 잠시나마 벗어나니	相從乍脫塵衡束
술 마시며 웃음 웃고 이야기나 실컷 하세	莫使尊前笑語闌

6) 동인계첩은 규암이 함께 계를 맺은 인물들을 생일 순서대로 차례대로 편차하여 그림을 그리고 각각 지은 시를 계첩에 붙였다고 한다. 함께 계를 맺은 인물은 참관 신영(申瑛), 전적 이존인(李遵仁), 판중주부사 김홍윤(金弘胤), 대사간 소봉(蘇逢), 관찰사 홍서주(洪敘疇) 풍저창수(豐儲倉守) 민전(閔荃), 도호부사(都護府使) 심통원(沈通源), 부정(副正) 이인현(李仁賢), 사옹원정(司饗院正) 하억수(河億水), 정랑(正郎) 유훈(柳暉), 목사 이몽량(李夢亮) 서윤(庶尹) 정유인(鄭惟仁), 동중추부사(同中樞府事) 이준경(李俊慶) 부호군 민응서(閔應瑞) 등 15명이다. 『圭菴先生文集』4, 年譜, 先生四十三歲(1541).

7) 『대동야승』 「동각잡기」 하.

있네

清話方知勝讀書

내일 그대를 산 아래길로 보내고 나면

明日送君山下路

작은 집 쓸쓸하여 세상을 도망친 듯 하도오

小堂寥落似逃虛⁸⁾

달밤에 찾아온 임당을 옥 같은 인물로 비유하고서, 반가이 술상을 차려 조출한 시 짓고 맑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일 아침 가고 말면 다시 쓸쓸한 빈집에 돌아오는 것 같을 것 같다고 탄식하였다. 이에 대해 임당은 규암의 시에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공무 파하고 돌아와 홀로 지내는 것 좋으니

衙罷歸來喜索居

뜰 가득한 숲에는 달빛이 어른대네

一庭林月正扶疎

조양에 이미 봉황새 와서 우는 것 알았으니

朝陽已覺鳴祥鳳

큰 바다에 되려 큰 고기 물어놔야 하리

大壑還須縱巨魚

소나무 문앞에 드리우니 손님 맞기 좋고

松蓋當門能迓客

대나무 창에 눈 쌓이니 글 보기 좋구나

竹窓留雪好看書

산음에서 친구 찾아간 흥취 아직 남았으니

孤舟不盡山陰興

가파른 비탈길을 구름다리 타고 찾아가고파

絕磴雲梯擬跨虛

공무를 파하고 홀로 지내는 규암의 처소에 달빛이 가득 쏟아지고 있는데 규암 처럼 큰 물고기가 큰 바다에 노닐기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일산처럼 펼쳐진 소나무는 손님 맞이하기 좋고, 대나무 창에는 눈이 쌓여 글 보기 좋으니, 비록 가파른 길이라도 구름다리라도 타고 가겠다고 화답하였다.

이후 규암과 임당이 지은 시는 당시 많은 문인들이 관심을 갖고 화답하였는데, 오늘날 『규암선생문집』에는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1491-1570, 기재申企齋 신광한申光漢, 1584-1555, 영천靈川 신잠申潛, 1591-1954,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1504-1547,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 낙촌駱村 박충원朴忠元, 1507-1581, 인재忍齋 홍섭洪暹, 1504-1585, 서포西浦 곽열郭說 등을 포함한 12명의 시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퇴계 이황, 금호 임형수, 임당 정유길, 하서 김인후는 1541년 4월부터 10월까지 호당에서 함께 글을 읽고 계

8) 규암이 지은 시의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을 참조하였으며, 규암시에 대한 번역은 송인수저/백규상번역, 『譯註 圭菴先生文集』, 제주교육박물관, 2014.10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하 내용에서는 주를 붙이지 않는다.

를 맺은 사이였다.⁹⁾ 금호는 나주 출신으로 문장을 잘하고 기개가 높았으며, 불의를 미워하여 윤원형의 미움을 받았다. 이 밖에도 호남인물로 영천 신잠과 석천 임억령이 있다, 영천 신잠은 순창의 신말주 후손으로 안처겸 사건으로 17년간 장흥에 유배되어 호남 일대에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석천 임억령은 해남출신으로 박상의 문인이며, 도량이 넓고 청렴결백하였으며 시문을 잘 지었다. 이들 호남 사림들은 규암이 공무 마친 여가에는 세상의 시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인륜의 도를 다하고 독서하며 청허한 품성을 기르는 생활을 칭송하였다. 영천 신잠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땅이 궁벽하니 외려 조그만 은거지 같은데

地僻還如小隱居

앉았노라니 마음이 절로 쓸쓸하네

坐來心事自蕭疎

뜰 앞에 소나무 늙었으니 응당 학이 깃들 것이

요

庭前松老應棲鶴

난간 밖에 연못 맑으니 물고기 기르기에 마땅하네

檻外池清合養魚

퇴식(退食)¹⁰⁾하고서 몇 번이나 글로써 문인들을 모았을까¹¹⁾

退食幾回文會友

향불 피우고 밤에 책 보는 것 다시 기쁘다네

焚香更喜夜觀書

그대의 고요한 가운데서 터득한 공부를 보니

看君靜裏功夫得

마음에 티끌 없이 수면에 비친 달처럼 비어있네

方寸無塵水月虛

규암이 궁벽한 곳에 조그만 은거지를 마련하고서 소나무와 연못을 갖추고, 때로 친구들을 불러 시를 주고받으며, 향불을 사르며 독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천은 이러한 규암의 공부는 틀림없이 수면에 비친 달처럼 한 점 티끌도 없이 맑고 허허로운 상태일 것이라고 노래하였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터득했으

9) 간재(艮齋) 최연(崔演), 십성당(十省堂) 엄흔(嚴昕), 추파(楸坡) 송기수(宋麒壽), 송재(松齋) 나세찬(羅世瓚), 국간(菊圃) 윤현(尹鉉), 죽계(竹溪) 임열(任說), 지산(芝山) 이황(李滉),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우암(寓庵) 김주(金澍), 상덕재(尙德齋) 정유길(鄭惟吉), 급고재(汲古齋) 이홍남(李洪男), 호학재(好學齋) 민기(閔箕), 담재(澹齋) 김인후(金麟厚) 등 13명이다(『松齋先生遺稿』卷4, 附錄下, 『附湖堂修稷錄』). 하서선생 문집 연보에는 신축년(1541) 4월에 휴가를 내려 호당에서 독서하였으며, 그해 10월 홍문관정자 겸경연전경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10) 퇴식(退食) : 관청에서 나와 집에서 밥을 먹음.

11) 글로써 모았을까 :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군자는 학문을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보강한다.(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는 말이 나온다.

니, 의당 그러리라고 여긴 것이다.
석천 임억령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썰렁한 집 적적하니 스님 거처인 듯 한데
寒齋寂寂比僧居
궁벽한 땅이라 문전에 말발굽이 드무네
地僻門前馬跡疎
공후(公侯)에 뜻이 없으니 내 증점을 허
여하고¹²⁾

志不公侯吾與點
꿈에 강해(江海)에 노니나니 물고기의 즐
거움을 알패라¹³⁾

夢遊江海我知魚
천하에 들도 없는 선비가 될라치면
欲爲天下無雙士
어찌 인간세상에서 성인 글이 아닌 걸 읽으랴
肯讀人間非聖書
술 한 병 가지고 세상일 논해 보고자
思把一樽論世事
멀리서 빠른 바람처럼 허공 타고 왔네
遠來風疾正乘虛

남산 밑 적막하고 궁벽진 곳이라서 찾는 이 드물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몇몇 소동과 함께 바람 쬐이며 물고기처럼 자연을 벗삼고 지낸다. 성인이 되기 위해 성인의 글을 읽는 이곳에 세상일 논해 보고자 석천이 술 한병 들고 멀리서 말 타고 바람처럼 찾아간다는 글이다. 소박한 생활속에서 경서를 읽으며 성인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규암을 만나고자 하는 소박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금호 임형수(林亨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몸에 금장(金章)차고 또한 고요히 거처하니

身縮金章且索居
맹호연이 병이 많아 찾는 친구 드무네
故人多病孟生疎
오늘날 닭 무리속에 학처럼 머물고
鷄群此日還留鶴
당년에 글원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않았네
澤畔當年未葬魚
잠을 깨우는 골짜기 새는 창문을 엿보고

12) 내 증점을 허여하고 : 점(點)은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다. 《논어(論語)》〈선진(先進)〉에서 그가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자 5, 6인과 아이들 6, 7인으로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자, 공자가 탄식하며 “나는 점을 허여하노라.[吾與點也]”라고 하였다.

13) 물고기를 알지 : 장자(莊子)가 그의 친구 혜자(惠子)와 함께 호수(濠水)의 다리 위에서 노닐 때, 장자가 말하기를, “피라미가 나와서 조용히 노니,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일세.” 하자,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莊子 秋水》

喚睡谷禽窺戶牖
 주림에 들어온 산의 푸름은 거문고와 책
 을 적시네
 入簾山翠潤琴書
 공무에서 돌아와 날마다 향 사르고 앉았
 노라니
 朝廻日日燒香坐
 소나무에 걸린 달빛 창에 이르고 밤 장막
 이 텅 비었네
 松月臨窓夜幌虛

금장은 금으로 된 인장으로서 규암이
 대사성에서 대사헌으로 전직한 사실을 가
 리킨다. 대사헌으로 전직한 규암이 도성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처를 마련하니,
 자연 찾아오는 친구도 드물다. 이러한 규
 암의 인품은 균계일학과도 같고 옛적의
 굴원이 아닐 수 없다. 산새가 잠을 깨우고
 푸르는 산빛이 서책을 적시는 속에 향 피
 고 앉았노라니 소나무에 걸린 달빛이 창
 가에 이르고, 밤은 고요하다는 시이다. 규
 암의 깨끗하고 고요한 인품을 잘 묘사하
 였다.

하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조회하고 방에 돌아와 한가히 지내니

朝廻一室儼閑居
 여흥에 소방(疎放)한들 무엇 방해되리
 餘事無妨時放疏
 붓 잡으면 삼협의 물이 거꾸로 쏟아지고
 14) 筆下倒傾三峽水
 묵지에는 북명의 물고기 날아오르네¹⁵⁾
 墨池飛出北溟魚
 객이 저문길에 돌아가니 달빛은 창을 엿
 보고

人歸暮逕月窺牖
 문은 낙화속에 덮였는데 바람이 책장을
 말아올리네
 門掩落花風捲書
 이 속에 쥐가 처음 터를 잡았을까
 誰向此間初卜築
 지금은 경계가 유달리 청허한걸
 只今偏覺境清虛

조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한가히 지
 내니 거칠 것이 없다. 붓 잡으면 장강의
 물결이 거꾸로 쏟아진 듯 하고, 문장은 대
 붓이 연못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듯 하
 다. 저물녘에 객 떠나면 달빛이 창을 엿보
 고, 낙화가 사립분에 가득 덮였는데 바람
 만이 책장을 넘기니, 이곳은 유달리 경계

14) 삼협의 물이... 거꾸로 쏟아지고 : 두보(杜甫)의 시에 “글 씌우는 삼협의 물을 거꾸로 쏟아지고, 붓글씨는 천 명의 적군을 홀로 쓸어내네[詞源倒流三峽水 筆陣獨掃千人軍]”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杜少陵詩集』 卷3, 「醉歌行」

15) 묵지(墨池)는 왕희지(王羲之)가 글씨를 배울 때에 연못에 붓을 씻어 물이 검었다 한다.

가 청허하다는 것이다. 공무를 마치고 돌아와 글을 짓고 자연속에 잠긴 규암의 청빈한 생활을 그림처럼 잘 묘사하고 있다.

규암은 특히 하서와 교분이 두터웠다. 규암은 한원당 김굉필, 모재 김안국으로 이어지는 사림의 학풍을 계승하여 소학의 실천과 성리학과 같은 도학을 중시하였던 인물이다. 모재가 임종할 때 말이 국사에 이르자, “뒷날의 일은 그대가 의당히 맡아야 한다.”¹⁶⁾ 할 정도로 마음을 두었고, 모재가 세상을 뜨자 규암이 대사헌이 되어 사림의 영수가 되었다.

규암은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에 급제한 이후, 김안로의 재집권을 반대하다가 1534년 제주목사로 좌천되었으며, 병을 칭탁하고 사임하자 사천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1537년 김안로 일파가 몰락하자 복권되고 예조참의, 대사성을 역임하였고, 1541년에는 예조참판겸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며, 모재의 뒤를 이어 사림을 이끌어갈 인물로 규암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다시 척신 윤원형과 권신 이기

에 의해서 1543년 전라도 관찰사로 쫓겨났다. 윤원형과 이기가 세자의 후사가 없고 대군이 사저에 있어서 인심이 불안하자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였는데, 규암이 이들의 음험함을 미워하자 끝내 규암이 자신들의 편이 되지 않음을 알고, 1543년 1월 규암을 전라도관찰사로 내친 것이다.¹⁷⁾

하서 역시 1519년 모재가 전라관찰사였을 때 수 개월 동안 『소학』을 배웠으며, 모재가 독권관이었을 때인 1540년(중종 35) 10월 1일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하서는 모재와 함께 기묘사림의 복권을 주장하였다. 모재가 타계한 이후로는 세자인 인종을 가르치면서, 1543년 7월에는 조광조 등의 복권과 향약과 소학 실시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8월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왔다. 이후 하서가 12월에 옥과현감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규암의 호남순력 때 다시 만나 학문과 정사를 논하게 된 것이다.

3. 규암의 호남순력

16) 『해동잡록(海東雜錄)』권1, 「본조(本朝) 송인수(宋麟壽)」.

17) 이후 규암은 1년 뒤 다시 형조참판으로 복귀하였다가 동지사로 명나라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 중종이 타계하고 인종이 즉위하였다. 규암은 귀국하자마자 다시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불안한 인심을 진정하고 풍속을 다스리는데 규암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대사헌에 제수된 것이다. 이때 이기가 우의정에 제수되고 윤원형이 2품으로 뛰어오르자 이들의 음험함과 흉악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탄핵하였다. 조정에서는 친한 벗들까지 다만 화만 불러들일 것이라고 애써 말렸지만, 탄핵을 그치지 않아 결국 한성부 좌윤으로 밀렸다. 이후 규암은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파직을 당하고, 어머니 상을 치루었던 청주 마암리에 돌아가 은거하였으며,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을 계기로 윤원형과 이기 등에 의해서 죽어야 할 자의 이름에 들어가게 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규암선생문집』 권4, 「연보(年譜)」.

규암은 1543년(중종 38) 2월 12일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¹⁸⁾ 이듬해 가을 동지사로 중국에 가게 되면서 전라도 관찰사를 그만두었으니, 대략 1년 6개월 정도 관찰사를 지낸 셈이다. 규암이 전라도 관찰사로 떠나자 남산에 우거하였던 규암에게 시를 보냈던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은 규암을 전송하면서 늘그막에 규암을 만나 답소를 나누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규암 송인수를
호남 관찰사로 떠나 보내며
送圭庵宋麟壽 觀察湖南

신교를 맺고자 해도 오래 동안 이루지 못
하다가

欲托神交久未堪
백두에 다행히 규암께 시를 지어 드리네
白頭猶幸賦圭庵
마음 비우고 몇 번이나 서로 웃었던가
虛懷幾度成相笑
허물없어진 유래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18) 『중종실록』 중종 38(1543)년 2월 12일.

19) 칼 잡는 것 [操刀] 는 수령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31년에, 정(鄭)나라 자피(子皮)가 연소한 윤하(尹何)를 자신의 읍대부(邑大夫)로 삼으려고 하자, 자산(子產)이 어려서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자피가 윤하의 신중한 면모를 들어 차츰 정치를 배우게 하면 다스릴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자, 자산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 그를 이롭게 해 주려고 하는 법인데, 지금 그대가 윤하를 아낀다고 하면서 정치를 맡기니, 이는 칼을 잡을 줄도 모르는 아이더러 베어 보게 하는 격이어서 해가 실로 많을 것이다.[人之愛人, 求利之也. 今吾子愛人則以政, 猶未能操刀而使割也, 其傷實多.]” 하였다.

20) 『圭菴先生文集』卷3, 附錄, 「送宋眉叟出按湖南」(夢菴柳希齡)

네 莫逆由來在不談
지기를 이별하는 자리에 봄풀은 푸릇푸
릇하고
知己別筵春草草
가는 길에 꽃잎 지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
는데
落花行路雨飉飉
칼 잡고¹⁹⁾ 곧바로 도려내는 것 이제부터
시험하니
操刀直割從茲試
틀림없이 호남을 주남, 소남으로 만드실
레지
定把湖南作二南²⁰⁾

봄풀은 푸릇푸릇 자라고 이슬비가 부슬 부슬 내리는 때에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으니, 능숙하게 행정 처리를 잘하여 호남을 시경의 주남, 소남처럼 풍속이 아름다운 고을로 만들어주기를 당부했던 것이다. 규암의 스승이었던 몽암夢庵 유희령柳希齡, 1480-1552도 규암이 전라도 관찰사에 부임하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시골 백성들 승평시대 이었으니
 故鄉遺庶屬昇平
 거듭 양춘에 걸어다니는 봄을 만났네²¹⁾
 荐見陽春有脚行
 몽승아 배꽃도 다투어 첫 이슬을 맞이하
 고
 桃李爭芳迎首露
 구름 안개는 높이 떠서 사신의 깃발 보호
 하네
 雲煙高拂護張旌
 복성(福星)이 멀리 비쳐 무더위 그치게
 하고
 福星遠照炎氛息
 수경(水鏡)이 밝게 임해 개구멍을 청결하
 게 하소서
 水鏡明臨狡穴清
 못 고을의 어진 수령에게 부탁하시게나
 寄語諸城賢太守
 감당의 교화 받들어 못 생명 구하시겠다고
 遵承棠化濟羣生

몽암은 규암이 사특한 기운을 없애고 수
 령들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백성들을 잘
 교화해 달라고 하였다. 복성과 수경은 지
 방관의 자질로서 복을 주고, 명경지수와

같이 공정한 마음이다. 감당은 주(周) 나라
 때 소공(召公)이 북연(北燕)에 봉해져서 감당
 나무 아래에서 어진 정사를 펼쳤는데, 소
 공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소공을 그리워
 해 감당나무를 베지 않고 감당지시(甘棠之詩)
 를 지어 기린 사실에서 비롯된다.²²⁾ 규암
 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복성과 수
 경이 되어 백성의 고충을 잘 살피고 복을
 주어 소공처럼 두고두고 백성들이 사모하
 는 관찰사가 되어주기를 바랜 것이다.

규암은 부임하자 먼저 어명을 받들어
 영광의 지지당(知止堂) 송흙(宋欽, 1459-1547)
 을 방문하였다. 지지당이 1541년 3월 83
 세의 연로한 나이로 벼슬을 그만두자, 중
 종(中)이 직접 만나보고 술을 하사하며 작별
 을 슬퍼하였는데, 규암으로 하여금 지지
 당을 방문해서 기영정을 짓고 위로하게
 한 것이다. 규암은 영광의 인근 고을 13명
 의 수령과 함께 기영정을 세울 것을 의논
 하였다.²³⁾ 당시 재상(宰相)이 된 사람 중에
 소탈하고 담박한 사람으로는 지지당 송흙
 을 으뜸으로 쳤고, 장성의 군수(君遂) 박수
 량(朴守良, 1491-1554)을 그 다음으로 쳤다.²⁴⁾
 지지당은 지조가 높고 깨끗하여 영달을
 바라지 않았으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

21) 양춘에 걸어다니는 봄 : 당나라 송경(宋璟)이 태수가 되어 백성을 사랑하고 구휼하니 당시 사람들이 ‘유
 각양춘(有脚陽春)’이라고 했다.

22) 『史記』卷34, 「燕召公世家」

23) 『國朝寶鑑』卷20, 중종 36년(1541) : 『圭菴先生文集』卷4, 「年譜」, 辛丑年(1543, 先生43歲)

24) 『大東野乘』, 「東閣雜記下」

해 지방관을 자처하였다. 어머니를 101세 까지 모셨으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식량이 자주 떨어졌다. 은퇴한 뒤에는 관수정觀水亭을 짓고 한가로이 지내며 서책과 친구들을 벗하며 지냈다. 이처럼 조정이나 고향에서 늘 처신이 바르고 깨끗한 지지당을 떠난 뒤에도 오래동안 잊지 못하여 규암을 통해 위로하게 한 것이다.

이어 규암은 나이 30이 넘어서 비로소 학문을 하기 시작하여 《대학》만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던 태인의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을 찾아갔다. 일재는 스스로 나이가 이미 많았는데 다른 책을 널리 보면 정력이 분산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학』만 가지고 평생의 사업으로 삼아서 미묘한 것을 깊이 통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규암圭菴은 그러한 일재의 어짐을 높이 여겨 일재를 만나서,²⁵⁾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었다.

호해(湖海)의 남쪽에 한 사람이 있으니
湖海之南有一人
영화로운 벼슬 구하지 않고 가난도 걱정
하지 않네
不求榮宦不憂貧
한가로운 세월 속에 공부를 하니
閒中日月工夫在

대학 글속의 취미가 더욱 참되다네
大學書中味更眞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가난도 걱정하지 않으며, 한가로운 세월속에 오랫동안 대학에 잠심하니 취미가 더욱 참되다고 칭송하였던 것이다.

일재 역시 규암이 찾아준 것을 감사하면서, 규암이 떠날 때 임금이나 선비들에게 말단이 아니라 근본에 대해서 말해야 하며, 처신에 대한 긴요한 도리를 말해야 한다고 하고서, 규암의 호남 순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호남의 관찰사로서 교화를 두터히 하고
觀察湖南教化淳
몸소 도의를 행하니 시골 사람이 본받는
구려
躬行道義效鄉人
백성들이 눈 비비고 새 정치 우러러 보려
면
庶民刮目瞻新政
잘 생각하고 성실하며 스스로 돌이켜 보
아야 한다오
克念存誠更反身²⁶⁾
규암이 몸소 도의를 실천하고 성실해야

25) 일재는 전라 감사 이언적의 방문 이후 유명해졌다고 한다. 『大東野乘』, 『東閣雜記下』

26) 『圭菴先生文集』卷3, 『贈宋圭菴 一齋李恒』

교화가 두터워지고, 백성들이 우러른다는 것이었다. 이후 규암은 동료와 선배, 스승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호남 곳곳을 순력하며 백성들의 교화와 사림들의 학문 진작에 힘을 쏟았다.

규암은 전라도 고을을 돌면서 유교적 풍속과 교화가 잘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히 살폈다. 그리하여 효우와 절행^{節行}이 아름다운 47인을 조정에 아뢰고 포상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중종은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요즈음은 완악한 풍습이 성행하는데 이 사람들의 효우·절행은 지극히 아름답다. 다만 사실을 살필 때에 경솔히 하여 외람되게 넘치는 폐단이 있을는지 모른다. 조종 때에도 이러한 일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잇따라 나왔으므로 아름답다고는 하겠으나, 혹 이름이 실속에 맞지 않을는지 모르니, 다시 잘 살펴서 아뢰라.”²⁷⁾

선대에도 이러한 일이 드문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라고 부탁하였다. 이들 중 11명은 이듬해 4월 조정에서 포상의 명을 내렸다.²⁸⁾

이듬해 4월 전주 유학^{幼學} 유승적^{柳承績}, 최응사^{崔應泗}, 김익한^{金翼漢}, 나주의 생원 정문손^{鄭文孫}, 고부 유학^{郭居仁}, 김제의 생원 나응허^{羅應虛}, 능성의 진사 구두남^{具斗南}, 진원의 전 군기시봉사^{軍器寺奉事} 박한충^{朴漢忠}, 태인의 진사 정언충^{鄭彦忠}, 금산의 전 훈도 김칭^{金稱}의 행적을 낱낱이 아뢰고 이들이 평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자가례』대로 여모살이를 하면서 삼년상을 치루었으며, 상을 마친 뒤에도 제사를 극진히 잘 지내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모재 김안국의 뒤를 이은 사림의 영수로서 전라도에서 효행과 유교적 풍속을 장려하고 많은 선비들을 포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규암은 1544년(중종39) 2월에 남원부사 오겸^{吳謙}, 1498-1582, 남평 현감^{南平縣監}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의 선정^{善政}을 치계하였다. 먼저 남원부사 오겸에 대한 계본이다.

오겸은 정사를 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을 공평하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친애하고 열복^{悅服}하였습니다. 공채^{公債}를 수납할 때는 관에서 독촉하지 않아도 백

27) 『중종실록』 중종38년(1543) 10월 24일.

28)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4월 17일

성들이 다투어 지고 와서 기한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할 지경이므로 금년의 공채는 물론이고 또 지난 여러 해의 포흠_{逋欠}까지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궁핍한 백성 중에 전택_{田宅}과 재산을 모두 팔아버리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지난 것까지 납부하지는 말라고 했는데도 중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남원부사 국재 오겸이 조세를 공평히 하였으며, 세금을 독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선정을 보고하였다. 그는 남평현감 휴암 백인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치계하였다.

인걸은 공무에 청렴하고 신중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부지런히 보살핍니다. 학당_{學堂}을 세우고 학장_{學長}을 두어 그 고을 자제들을 가르치며, 공무를 보는 여가에 친히 나가 학업을 권장하는 등 지성으로 가르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책 읽기를 즐겨워했습니다. 이웃 고을에까지 그 소문을 듣고 배우러 오니, 진심으로 교회_{敎誨}하여 강론을 그치지 않았습니다.²⁹⁾

휴암이 청렴하며 백성의 고통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학당에서 학장이 글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도 여가에 친히 나가 학업을 권장하였다는 것이다. 국재 오겸은 적개공신_{敵愾功臣} 오자치의 손자로서 1532년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과 지방관을 두루 역임한 인재였고, 휴암 백인걸은 정암 조광조의 문인으로 모재 김안국에도 배웠고, 1537년 문과에 급제한 인물로서 그 무렵 남평현감을 지냈다. 조정에서는 규암의 장계를 받자 이들에 대해 품계를 한 단계씩 높였다.

규암은 이듬해 봄에는 경상도 관찰사 회재 이언적₁₄₉₁₋₁₅₅₃을 남원 백장사에서 만나 학문과 경세를 논하였다. 회재는 1543년 7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이듬해 병이 나서 사직하였는데, 1544년 봄에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있는 백장사에서 규암을 만나 학문을 강론하고 시를 주고 받은 것이다.³⁰⁾ 물론 이 때 회합은 관찰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규암이 회재의 고견을 들을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회재는 1538년 10월 전주부윤이 되어 이듬해 12월, 병조참판 겸세자우부빈객이 되어 상경하였는데, 1539년 10월 조정의

29) 『중종실록』 중종39년 2월 27일.

30) 허권수, 「규암 송인수의 선비정신과 시세계」, 『유학연구』13, 충남대유학연구소, 2006, 14쪽.

구언에 응해 수 천자의 상소문을 올렸다. 그 내용은 임금의 마음이 강이요綱, 그 조목이 열 개이니, 가정을 家政을 엄하게 할 것,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기를 것, 조정을 바르게 할 것, 사람 쓰고 버림을 삼갈 것, 천도天道에 순종할 것, 인심을 받을 것, 언론의 길을 넓힐 것, 사치로운 욕심을 경계할 것, 군정軍政을 닦을 것, 기미幾微를 살필 것 등이라는 취지이다. 이 때문에 중종도 깊이 탄복하고 “옛날 진덕수眞德秀도 뛰어날 수 없다고 칭찬하고 세자인 인종에게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암은 회재를 만나 학문과 경세를 토론하였는데, 이때 규암은 회재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주었다.

반갑게 절집에서 상봉했으니

蕭寺相逢處

봄이 장차 저물려 하는 때로세

春風欲暮時

등불 아래 반가운 벗을 대하고

燈前青眼舊

객지에서 머리 센 걸 슬퍼하누나

客裏白頭悲

마음 다해 술잔에 술을 따르고

盡意添杯杓

금세 닥친 이별에 놀라워하네

驚心忽別離

호남과 영남에서 함께 달 보며

二南同見月

천리 밖의 마음 서로 짐작하리라

千里片心知

절에서 오랜만에 상봉하여 밤늦게까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술잔을 나누었던 것이다.

3월 22일에는 영광의 지지당을 다시 방문했다.³¹⁾ 1년 전 부임하여 정자를 짓게 하여 지지당을 위로하게 하였는데, 이제 기영정耆英亭이 지어져서 낙성식이 거행된 것이다. 이때 규암은 지지당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호남의 영특한 우리 후(侯)께서는

湖海維靈有我侯

일생동안 맑고 청빈함을 닦으셨네

一生冰蘖苦清修

주상의 은혜 거듭 포상이 내렸고

主恩稠疊連褒賞

효심이 깊어 자주 지방관을 자청했네

孝意純深數乞州

시령에는 이삼 천의 책이 꽂혀 있는데

31) 『朝鮮王朝實錄』 중종39년(1544) 3월 22일, “전라도 관찰사 송인수(宋麟壽)가 영광군(靈光郡)에 순찰 나가, 판중추(判中樞) 송흠(宋欽)을 위해 기영정(耆英亭)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은 이 고을 사람이고 정자는 곧 송인수가 조정에서 숭상하고 장려하는 뜻을 이어받아 세운 것인데, 이때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어 영광스럽게 해 준 것이다.”

架插二千卷帙
 나이가 높아 여든 여섯의 춘추이시네
 年高八十六春秋
 기영정에서 아름다운 모임 가지니
 耆英亭上成佳會
 단청에 옮겨져 만세토록 보존하리
 移入丹青萬世留³²⁾

지지당 송흙의 청렴함과 효심을 기린 기영정에서의 아름다운 모임이 만세토록 보존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 모임에는 옥과 현감이었던 하서도 참가하였을 것이다. 지지당이 101세를 산 노모 봉양을 위해 휴가를 청하고 집에 돌아와서 1537년 관수정觀水亭이란 정자를 지었는데,³³⁾ 이때 모재 김안국을 비롯해서 기재 신광한, 학포 양팽손, 호음 정사룡, 무릉 주세봉, 송재 나세찬, 하서 김인후 등이 시를 보내왔다. 원운은 지지당이 지었다

관수정
 觀水亭

물가에 정자 여름에도 서늘하니
 危構臨流夏亦寒

늙은이는 날마다 난간에 의지하네
 老夫無日不憑欄
 골짜기 어구 두 시냇물 차지하니
 既專谷口雙溪水
 어찌 용문의 팔절탄만 좋다 하라.
 系羨龍門八節灘
 물에 잠긴 그림자 참으로 좋은데
 靜影沈光真可樂
 비에 씻긴 그 모습 더욱 볼만한네
 晴粧雨抹最堪觀
 천자만태 눈앞이 어지러우니
 千姿萬態渾迷眼
 맑은 물 길러서 내 마음 씻어보려네
 要取清瀾洗我肝

골짜기 시냇물 사이로 정자를 짓고 여름철 한가로이 지내면서 정자의 풍광을 감상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격조높은 시이다. 이에 대해 하서는 지지당의 시를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관수정 원운에 따라 짓다³⁴⁾
 次觀水亭韻

물기운 맑고 맑아 여름에도 차가운데
 水氣清冷夏尚寒

32) 『圭菴先生文集』卷1, 詩, 「題知止堂宋公欽耆英亭」

33) 학포 양팽손의 문집에 정해년 즉 1537년에 송흙의 원운시에 맞추어 시를 지은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양팽손, 『學圃先生文集』卷4, 附錄, 「年譜」, “六年丁亥 先生四十歲 次知止堂宋先生觀水亭韻”)

34) 『河西先生全集』卷10, 七言律詩, 「次觀水亭韻」

주인 홀로 한가로이 난간에 기대있네

主人無事獨憑欄

높은 뜰에 먼저 오름 스스로 알게 되니

先登自解臨高岸

급류 따라 용퇴(勇退)함도 무엇이 어려우리

勇退何難趁急灘

공자님은 덕이 온전하여 산도 아울러 즐기었고

孔聖德全山竝樂

소동파는 통달한 사람이니 달과 함께 보았네

蘇仙意達月同觀

기둥마루 툇 띄어라 공중의 누각이여

軒楹洞豁空中閣

여름철 한나절 난간에 기대어 있는 주인의 출처의 바른 모습과 산수를 즐기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규암은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인물들을 찾아보며, 그들의 신원을 모색하였다. 예컨대 규암은 진도 벽파정에서 충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이 지은 시에 차 운하여 시를 짓는다. 충암의 시는 이렇다.

우주는 예로부터 영원한 것이요

宇宙由來遠

인생이란 본래 덧없는 것

人生本自浮

일엽편주에 몸 싣고 여기서 떠나가리니

扁舟從此去

머리 돌리면 정히 아득하리

回首政悠悠

우주는 영원하지만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덧없는 것, 이제 일엽편주에 몸 싣고 벽파정을 떠나가면 이곳마저 아득하리라는 시이다. 유배길을 떠나는 쓸쓸한 생각이 가득하다. 이에 대해 규암의 시는 이렇다.

외론 충정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孤忠輕性命

짧은 노는 멋대로 뜨거나 잠기거나

短棹任沈浮

해는 지고 방주는 하 멀기만 하여라

日落芳洲遠

넋을 부르려니 뜻이 더욱 아득하구려

招魂意轉悠

일엽편주를 타고 바다로 떠난 충암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오로지 충정으로 목숨을 가벼히 여겨 유배길을 떠나는 충암을 부르고자 하나, 짧은 노가 떴다 잠겼다 하는 속에 해 지고 방주는 멀어지며 충암은 더욱 멀어져간다는 슬픈 마음을 고백하였다. 벽파정에서 규암의 혼을 부르고자 하였던 규암은 전라도 관찰사를 마치고서 조정에 올라가 인종에게 정암 조광조나 충암 김정의 신원을 다시 청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4. 규암과 하서의 재회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규암과 하서가 언제 다시 만났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서가 1543년 8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전라도 감영에 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다 정암이나 모재 연원으로 서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둘이 꿈꾼 유교적 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궁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하서는 중앙에 올라가지 않고 그해 12월 전라도 옥과현감으로 부임하게 된다. 『하서선생연보』에서는 양친이 연로하기 때문에 부모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을 맡았다고 하였다. 당시 미암 유희춘이 무장현감이었고, 규암이 전라관찰사였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와 있던 하서에게 부모를 봉양하면서 지방교화를 위해 지방관을 권하였으리라고도 여겨진다.

이후 규암은 호남지방을 순력하다가 옥과현에서 하서를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규암문집을 살펴보면 규암이 동복동헌에서 오언율시를 읊고 이어 하서에게 글을 준 다음 남원 동헌에서 시를 짓는다.³⁵⁾ 규암의 시가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을 때, 규암이 동복에서 옥과관아를 들러 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서 김후지 인후에게 드림

贈河西金厚之麟厚

반가이 그대 만나니

靑眼逢君地

붉은 누대에 날 저무려하네

朱樓欲暮時

회포를 푸는 것은 술로 의지하고

開懷惟賴酒

근심을 밀치는 것은 시에 기대네

排悶只憑詩

공무에 몸이 시달리니

簿領添衰老

만나자마자 또 이별이네

萍逢又別離

이별 노래 재촉하지 말고

莫催三疊曲

먼길 가는 사람 위로하시게

留慰遠人思

하서를 만나 반가웠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다. 술과 시에 의지하여 회포를 풀더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공무 때문에 또 이별하게 되리라. 그대는 남아 멀리 떠나는 사람 위로나 해달라고 노래하였다. 그러나 하서는 옥과에서 머물지 않고 남원

35) 『圭菴集』(初刊本, 1907)에는 「次同福東軒韻」, 「贈河西金厚之」, 「次南原東軒」 순으로 되어 있다.

까지 규암을 배종하였다. 규암은 남원 동헌에 들러 시를 지었다.

남원 동헌시에 차운하다
次南原東軒韻

언덕과 습지 험한 길 말을 몰다가
原隰驅馳道路難
때로 높고 험한 산 바라보네
時留雙眼尚孱顏
요천은 문득 형수(荊水)를 보는 듯 하고
蓼川忽似瞻荊水
밤재는 다시 저산을 바라보는 것 같구나
乘嶺還如見楮山
우연히 객지에 깃든 몸똥아리는
身跡偶棲羈旅地
꿈속에서 오래도록 고향 찾는데
夢魂長入故林間
어느 해나 임금님께 보답 다하고서
何年爲報君恩了
남은 생애 마음껏 즐길까
剩得生前太劇閒

규암은 남원에 오면서 멀리 고향산천과도 같은 것을 보고서 고향에 가고픈 심정을 노래했다. 남원의 요천은 고향의 형수, 밤재는 저산과도 같아서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어느 때 군왕의 은혜

보답하고서 고향에 돌아갈까라고 탄식하였다.

이어 규암과 하서는 남원부사 국제 오겸과 함께 광한루에 올랐다. 하서는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광한루 운
廣寒樓韻³⁶⁾

평생 광한루에 대해서 들었지만
生平見說廣寒樓
지음이 윗자리에 있을 줄을 어찌 알았겠
나
誰解知音在上頭
상국의 풍도는 사람마다 우러르고(규암 관찰사)
相國風期均所仰(觀察使圭庵)
사또의 명성과 공적은 다 거들만 하네(오겸 부사)
使君聲績盡堪收(府使吳謙)
다리는 오작이 비껴 진경(眞境)을 열었고
橋橫烏鵲開眞界
성에는 교룡이 엮드려 승경에 들었구나
城偃蛟龍入勝遊
방장은 삼한 천하라는 구절이 있으니
方丈三韓天下句
지금도 풍광이 주구를 두려워하네
至今雲物怕誅求

36) 『河西先生全集』卷10, 七言律詩, 「廣寒樓韻」

一江風月幾年閑

하서는 광한루에 올라 규암과 국재의 덕망을 칭송하고 오작교와 교룡산성 일대의 뛰어난 풍광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두보가 “방장산은 삼한의 밖에 위치하고, 곤륜산은 만국의 서쪽에 솟아 있네.[方丈三韓外 崑崙萬國西]”³⁷⁾라고 한 이후 광한루에서 바라보이는 방장산을 찾는 사람이 많음을 주구를 두려워한다고 슬쩍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이어 규암과 하서는 남원의 기묘명현 사제당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처소에도 들렀다. 규암은 안처순이 효성이 지극해서 3년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상례를 마친 것에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읊었다.³⁸⁾

문장 고락이 계산 옆에 있는데
宅餘文藻傍溪山
모래사장에 갈매기만 왔다갔다하네
只見沙鷗往復還
창망한 마음에 그리워 눈물을 뿌리니
悵望斯人爲灑淚
강산 풍월은 몇 년이나 한가로웠을까.

사제당의 처소는 계산 옆에 있어서 갈매기만 오락가락 하고 오랫동안 찾는 이 없음을 서글퍼하였다. 하서도 차운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지었다.³⁹⁾

지붕 위에 산봉우리 점점이 의연한데
屋上依然數點山
백년의 정령 어느 때나 돌아오려나
百年精爽幾時還
모름지기 효도와 우애는 평생의 일인 줄 아
니
須知孝友平生事
어찌 고기잡이 나무꾼만 한가로이 상대하리
不但漁樵相對閒

처소 위 산봉우리는 여전한데 한번 떠난 안처순의 혼령은 언제 돌아오려나. 효도와 우애는 평생의 일이었으니, 자신처럼 고기잡이와 나무꾼이 아니더라도 상대하러 오시리라는 시이다. 규암과 하서는 사제당 안처순의 효행을 그리고 그를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마음을 읊고 있다.⁴⁰⁾

37) 『杜少陵詩集』卷3, 「奉贈太常張卿垺20韻」.

38) 『圭菴先生文集』卷1, 七言絕句, 「思齊堂題詠 并小序」, “思齊即己卯名賢安公處順號也 安先生順之 孝性純至 居廬三年 不脫衰經 血泣終喪 鄉閭稱其善居喪 余登斯堂 望見舊宅 思其人不可見 悲歎不已 金上舍義 誦其所作絕句 仍次其韻 以寓慕想之意云 宅餘文藻傍溪山 只見沙鷗往復還 悵望斯人爲灑淚 一江風月幾年閑”

39) 『河西先生全集』卷7, 七言絕句, 「題安判官 處順 思齊堂」

40) 훗날 하서는 순창에 은거하였을 때인 1549년 7월, 남원 금지에 살고 있었던 죽계 안전의 요청을 받아들

이윽고 하서는 남원에서 규암과 작별하게 된다.

慙愧無辭贊召棠⁴³⁾

멀리 전라도⁴¹⁾ 관찰사⁴²⁾로 부임하니
 龍節遙臨大海陽
 임기가 어느덧 더위와 추위를 지났네
 瓜期浩浩閱炎涼
 호남사람들 새 정치 기대하여
 南人拭目看新政
 지방관 되어 구관(舊官)을 떠나왔도
 北闕分憂謝舊行
 명도처럼 봄 바람에 풀이 무성하듯 어질었고
 明道春風豐草上
 연평처럼 가을 달의 못 별인양 고결하였네
 延平秋月庶星傍
 저물녘 강루에서 유유히 작별하니
 悠悠奉別江樓晚
 소공의 교화 도울 말이 없어 부끄럽네

규암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어진 성품과 고결한 인격으로 새로운 정치를 펼쳤는데, 저물녘 강가에서 이별할 때 관찰사를 위해 도울 수 없음을 안타까이 여긴 것이다.

하서는 이러한 규암의 호남 순력을 40구의 가요를 지어 칭송하였다.⁴⁴⁾ 먼저 규암의 자품과 절개, 바다같은 도량이 송죽松竹이 높이 솟고, 난새와 학의 우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았다고 규암의 천품을 기리고,⁴⁵⁾ 이어 규암이 학식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벼슬길에 나아가 곧은 도리를 지키며 학교와 예악을 일으키고 인재를 등용하니 유림들이 태산복두처럼 받들었다고 규암의 학문과 공적을 찬양하였다.⁴⁶⁾ 그리고 호남관찰사로 부임한 규암의 행정

여 「기묘제현첩서」를 쓰게 되었다. 안전의 부친 사제당 안치순이 성균관박사를 지내다가 노모의 봉양을 위해 1518년 구례현감으로 부임하자, 정암 조광조, 자암 김구, 충암 김정, 신재 최산두 등이 안치순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글을 남겼는데, 안치순의 아들 안전이 두 권의 책을 만들어서 김인후에게 그 서문을 요청하였다.

41) 전라도 : 원문의 해양(海陽)은 전라도의 옛 이름이다. 고려 성종(成宗) 14년(995)에 나주(羅州)·광주(光州)·정주(靜州)·낭주(朗州) 등의 주현(州縣)을 해양도라 하였다가 현종(顯宗) 때 강남도(江南道)와 함께 전라도에 합하였다.

42) 관찰사 : 원문의 용절(龍節)은 왕명을 받들고 출사(出使)하는 자가 지나는 용모양의 부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관찰사를 의미한다.

43) 『河西先生全集』卷10, 七言律詩, 「龍城 奉別圭庵相公」.

44) 『河西先生全集』卷10, 五言排律, 「全羅道歌謠 時圭庵爲觀察使」.

45) 『河西先生全集』卷10, 五言排律, 「全羅道歌謠 時圭庵爲觀察使」. “乾坤多小氣 秀發擅精英 玉樹臨風迥 冰壺貯月清 神明通孝悌 金石貫精誠 浩浩滄溟闊 溫溫瑞日晶 松篁高聳幹 鸞鶴遠聞聲”

46) 같은 글, “弱歲曾優學 餘力早策名 德存齊險易 情定絕將迎 頃值陰邪橫 猶憑直道亨 風波萬里外 家國一身輕 公會

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남녘을 순시하며 위무하라는 명 받아

按撫膺南國

서울에서 내려와 왕화(王化)를 폈네

承宣自北京

모든 고을 고삐 잡고 돌아오니

諸州歸攬轡

길마다 가는 곳 우러렸네 一路仰干旌

위엄은 탐학한 무리에게 먼저 쓰고

威克先饜饜

어진 정사는 외롭고 불쌍한 이에게 베풀었네

仁施始獨榮⁴⁷⁾

조정에서 교화를 펼치라는 명을 받아 호남 전역을 순시하며 어진 이를 찾아갔으며, 형벌을 엄히 하고 불쌍한 이에게 어진 정사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암의 호남 순력을 칭송하는 글로 끝맺었다.

이제야 봄이 다리가 달려 있음을 알았고

方知春有脚

실정없는 송사를 보지 못했네

不見訟無情

낙수에선 미나리 마름캐는 노래를 부르고

樂水歌芹藻

방주에선 향초를 캐는구나

芳洲攬菑蘅

허물러진 풍속이 다시 떨치고

頽風看再振

끊어진 학문이 새로 흥기를 하니

絕學屬新盟

어허, 고루한 나는 광간하여

孤陋嗟狂簡

부질없이 거문고를 타고 있을 뿐이네

空操點瑟鏗⁴⁸⁾

호남의 모든 고을을 빠짐없이 안무하게 되니, 까닭없는 송사가 일어나지 않고 허물어진 풍속이 다시 떨치고 유학이 다시 흥기를 하게 되었다고 규암의 공적을 기렸다. 하서의 이러한 평가는 조정에서 내려와 옥과현감으로 출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에서 소학과 향약을 다시 실시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주장대로, 규암을 도와 지방에서 미풍양속을 일으키고 유교적 교화를 달성해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규암의 호남사림 발굴과 유교적 교화는 이후 호남사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규암은 을사사화의 여파로 1547년 죽음을 당하였지만, 광주의 고봉 기대승이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23일에 사

牧濟州故云 大壑魚還縱 朝陽鳳轉鳴”

47) 같은 글.

48) 같은 글.

헌부 집의로서 을사사화에 화를 당한 회재 이언적과 규암 송인수의 신원을 요청하였으며, 1577년(선조10)에는 강진의 청련 이후백이 선조의 교서를 대신 작성하여 을사사화 때 표창된 인물에 대해서 위훈으로 규정하고 당시까지 신원되지 못한 인물들을 복권시킴으로써 을사사화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규암의 종증손 우암 송시열은 청련 이후백의 행장을 지어 청련의 글이 한 번 나와서 규암 송인수의 원분을 깨끗이 씻어 주어 경양하기를 마지 않았다. 또한 규암과 도의와 문장으로 사귀 하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물 중에 도학, 절의, 문장을 겸한 인물이 드문데, 하늘이 해동을 도와 하서를 낳아 세가지를 겸하게 하였다고 칭송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규암 송인수의 호남사림과의 교유와 호남순력, 하서 김인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호남사림은 성종 대부터 진출하기 시작하여 중종 대에 전라도 관찰사였던 모재 김안국과 규암 송인수의 영향으로 소학의 실천적 예속이나 경서 등의 성리학, 의리를 중시하는 기풍을 갖게 되었다. 모재의 뒤를 이어 사림의 영수가 되었던 규암 송인수는 정암이나 모재

등 기묘사림을 연원으로 하는 호남사림과 친분이 두터웠고, 1543년 2월에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가을까지 전라도 지역의 유풍의 진작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는 전라도 곳곳을 순력하며 수령의 현부를 살피고, 교화를 펼치며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는 남원부사 오겸吳謙과 남평 현감南平縣監 백인걸白仁傑이 조세를 공평히 하고, 학교 교육을 진흥하였다고 장계를 올렸으며, 부모에게 효행한 인물을 적극 조정에 추천하였다. 특히 소학과 주자가례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 사후 장례를 극진히 치루고, 삼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고 제사를 잘 받든 인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였다. 호남 곳곳이 유교적 예속으로 삼대의 태평성대가 오기를 희구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암은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암 조광조나 충암 김정 of 유배길을 찾았고, 어진 인물의 기상을 본받고 선양하기 위해 일재 이항, 지지당 송흙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규암의 호남순력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규암과 친분이 두터웠던 하서가 옥과 현감으로 다시 출사하였다는 점이다. 하서는 중앙에서 정암 조광조 등의 기묘사림 신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하서가 다시 출사한 것이 규암을 도와 기묘사림의 전통을 잇고 향촌사회에 유교적 풍속을 이

룩하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서는 옥과 뿐만 아니라 남원 등지에도 규암을 동행하였다. 그리하여 하서는 규암이 떠난 뒤 전라도 가요를 지어 규암이 학교를 흥성하게 하고, 예악을 숭상하고 법도를 바로잡았으며, 어진 이를 추천하여 온고을에서 우리렀다고 규암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후일 을사사화의 여파로 규암이 화를 입자 선조초에 광주의 고봉 기대승이나 강진의 청련 이후백이 규암이나 회재를 신원하는데 적극 앞장을 섰다. 이러한 이유로 후일 규암의 종중손인 우암 송시열은 청련 이후백의 행장을 지어 규암을 신원하였다고 경모하는 마음을 표하였고, 규암과 도학과 문장으로 사귀었던 하서를 도학과 문장, 절의 세가지로 검비한 완인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암의 이러한 평가는 조선후기 호남지역에서 절의와 도학을 중시하는 기풍이 더욱 깊어지게 하였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史記』(國立中央圖書館)

『國朝寶鑑』(國立中央圖書館)

『海東雜錄』(國立中央圖書館)

『大東野乘』(國立中央圖書館)

『朝鮮王朝實錄』(한국고전종합DB)

『學圃先生文集』(한국고전종합DB)

『圭菴先生文集』(한국고전종합DB)

『河西先生全集』(한국고전종합DB)

『松齋先生遺稿』(한국고전종합DB)

『國譯 河西全集』(1993, 필암서원)

『譯註 圭菴先生文集』(2014, 제주교육박물관)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142-145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허권수, 『규암 송인수의 선비정신과 시세계』, 『유학연구』13, 충남대유학연구소, 2006, 14쪽.

존심양성存心養性이 곧 사천事天이다

- 존심이 유가공부의 요체라 했던
소재 노수신盧守愼, 학문이 정밀하고 해박하여
유림의 촉망이 이황을 앞설 정도였다고 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면 자기의 성성을 안다. 자기의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단명하거나 장수하거나 의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덕을 닦아서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천명을 지키는 방법이다.孟子曰: 盡其心者는 知其性也이니 知其性則知天矣니라. 存其心하여 養其性은 所以事天也니라. 夭壽에 不貳하여 修身以俟之는 所以立命야니라)

存心은 맹자의 盡心章 상편에 나오는 말이다.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본심을 해치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본연의 상태를 지키는 것을 존심이라고 한다. 따라서 존심은 소아적인 이기심과는 다른 인간 본연의 대아적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유학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실천명제를 말한다. 仁義와 孝道는 존심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천명제다. 인류 미래의 가장 바람직한 지향점으로 존심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자기가 서야할 본연적 품성의 기반과 이기심 없이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존심이다.

존심이 유가공부의 요체: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노수신은 20세(1535년)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25세 때 성균관에서 <시습잠時習箴>을 지어 김안국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27세 때는 마침 서울에 올라온 이언적을 방문하여 제자의 예를 행하고 존심存心의 방법을 물었다. 이 무렵 노수신은 학문이 정밀하고 해박하여 유림의 촉망이 이황을 앞설 정도였다고 한다. 29세 때인 중종 36년 문과 의 초시 회시 전시에 모두 장원하여 벼슬 길에 올랐고, 인종 원년 정언이 되어 당시 정승의 자리에 있었던 권간權奸 이기李奎를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그러나 인종

이 갑자기 서거하고 명종이 즉위한 직후 을사사화가 일어나 파직되어 고향 상주로 돌아갔다. 상주에서 조부상을 마치고 바로 순천에 유배되었고, 양재역벽서사건이 일어나 진도로 이배되어 이후 19년 동안 진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노수신은 진도에서 독실하게 학문에 정진하여 37세(1552년)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를 저술하고, 이 원고를 이황 김인후에게 보내어 질정을 구하였다. 이황은 <숙흥야매잠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정주학(程朱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길이 남게 될 역작’이라고 찬상하였다.

그러나 노수신이 45세와 48세 때 <인심도심변(人心道心辨)>과 <집중설(執中說)>을 저술하고 이 글이 사류들 사이에 유포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자, 이황의 태도는 일변하게 된다.

미발(未發)의 마음인 도심(道心)이 바로 중(中)이자 천리(天理)이자 본성(本性)이고, 이 도심(道心)이 발한 것이 인심(人心)이라고 하였다

노수신은 <인심도심변>에서 미발(未發)의 마음인 도심(道心)이 바로 중(中)이자 천리(天理)이자 본성(本性)이고, 이 도심이 발한 것이 인심(人心)이라고 하였다. <집중설>에서는 천리인 도심을 잡아지켜서 인심으로

잘 발현되게 하는 존심(存心)이 성인이 도통(道統)을 전하면서 제시한 유가공부의 요체라고 주장하였다.

<인심도심변>과 <집중설>은 이황, 기대승, 이황, 노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황은 노수신의 인심도심설이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간파하고, 제자들에게 “남명(南溟)이 장자(莊子)학문을 창도하고 있고 소재가 육象山(陸象山)의 견해를 고집하고 있으니, 고봉(高逢)이 분발하지 않으면 육씨(陸氏)의 학문이 성대하게 유행하는 것이 중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한 직후 노수신은 19년 동안 지속된 유배에서 풀려났다. 이후 홍문관 교리, 청주 목사, 충청도 관찰사, 호조 참판, 대제학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올랐다.

노수신이 조정으로 돌아온 때는 동인과 서인의 분열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노수신은 율곡 이이와 함께 사림의 분열을 막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황을 비롯한 당대 주자학들에 맞서 양명학을 지지하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노수신은 모친상을 당해 여막에서 지내던 69세 때 주자의 <대학> 개정 작업을 부정하는 선유(先儒)의 글들을 모아 <대학집록(大學集錄)>을 편찬하고, 이 책에 왕수인의 중요한 저작인 <대학문(大學問)>과 자

신의 글 〈회재선생대학보유후발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을 수록하였다.

또 “명명덕明明德 실은 수레 어디메를 가더이고/물격物格치 너머들어 지지知止고 개 지나더라/가기야 가더라마는 성의관誠意關을 못 갈네라.”라는 시조를 만들어 사람들이 가창하게 하였다.

이 시조는 격물 공부를 통해 지선至善의 소재所在를 파악해야 성의誠意의 실천 공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주자학의 공부론을 비판한 것이다.

1570년 8월 유성룡을 전별하기 위해 도성의 사류들이 한강가에 모인 자리에서는“육망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다.

양명학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적과 가요와 시를 유포하고 있던 노수신의 행보는 당대 주자학자들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황은 하세하기 몇 달 전 유성룡의 전별연에서 나온 노수신의 시에 차운하여 명나라와 우리나라에서 상산학이 홍수처럼 일어나 태산 같은 주자학을 덮치고 있다고 탄식하였다. 이황이 말한 상산학은 양명학을 지칭하는 것이다.

훗날 이식李植은 이황과 학문적으로 대립한 노수신에 대해 “주자의 때에 홀연 육상산이 나타난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하였다.

- 『고전사계 2021 겨울(통권 44호) 14~15쪽
신향림 연구원 글에서 가져옴.

하서 김인후의 서예書藝

유지복(전주대학교)

< 논문 요약 >

김인후는 기묘제현의 필첩을 보고 서문을 남겼다. 그 서문 글씨와 내용은 ‘文’이 ‘道’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書’ 또한 ‘도’를 실현해나가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인후는 사위 조희문과 양자징을 위해 주희의 <무이구곡가>와 이에 대한 해설을 단정한 필치의 해서로 써주었다. 이 글씨의 전체적인 자형은 왕희지 해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안진경의 필법도 가미되어있다. 이는 김인후가 왕희지로의 복고 경향을 보였던 16세기 초반 서단의 흐름을 따르는 한편, 충절의 표상으로서 안진경의 획법을 일부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김인후의 글씨 중 가장 대표적인 서체는 초서이다. 그가 기묘제현을 계승한 상징적 인물이므로 단정한 운필을 구사했을 거라 예상되지만, 그의 초서에는 광초에 가까운 明 張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김인후는 필세의 기상을 중시하여 그의 초서에 현결찬 자태가 두드러진다. 이는 그가 초서를 통해 일탈의 기상을 표출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희가 순창에서 경영하던 자신의 정자에 김인후, 정사룡, 신잠을 초대하여 어울릴 당시 남긴 초서 필적이 있다. 이 글씨는 그간 서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았으나, 필적 대조를 통해 김인후가 직접 쓴 초서임을 확인하였다. 이 초서 필적이 그가 직접 필사한 현존 유일작이라는 점에서 목판본 <초서천자문>과 더불어 김인후의 초서를 대표하는 필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주제어 : 서예, 김인후, 조희, 무이구곡가, 기묘사림, 초서천자문.

* 이 논문은 현 필암서원 원장 朴秉濂(전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선생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두 번째 연구임. 첫 번째 연구는 유지복, 「김인후의 초서와 예술적 성취」, 『호남문화연구』 58(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참조.

I. 서론

金麟厚(1510-1560)는 16세기 호남이 배출한 대학자이다. 그는 도학, 절의, 문장을 갖춘 큰선비로 후대에 추앙을 받았던 도학자이자,¹⁾ 국내 최초로 <草書千字文>을 간행할 정도로 글씨에 능한 서예가였다. 그의 본관은 울산이고, 자는 厚之이다. 河西라고 자호했으며 湛齋라고도 했다. 김인후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0살 때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金安國에게 小學을 배웠으며, 18세 되던 해에는 同福에 유배와 있던 崔山斗를 찾아가 학문을 논하였다. 24세에는 성균관에서 李滉과 함께 강학하였으며, 31세(1540)에 등제한 뒤 홍문관 부수찬을 거쳐 玉果 縣監을 지냈다. 36세(1545)에 仁宗 사후 을사사화를 피해 사직하고 고향 장성에 돌아와 재야 사림으로 활동하였다.

김인후의 산림처사로서의 품모와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와 문학 방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²⁾ 반면 서예가로서 위상이 남다른 김인후의 서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김인후의 서예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김인후가 편집한 것으로 전하는 《百聯抄解》를 비롯하여 《武夷九曲歌帖》, <草書千字文> 등의 목판본 필적과 <連韻詩文> 등의 유묵 진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그러나 진위가 의심되는 작품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더러 있고, 眞蹟과 模本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진적과 모본의 구분 및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模刻과 遺墨으로 남아있는 김인후의 필적을 망라하여 김인후의

- 1) 宋時烈, 『宋子大全』 권154, 「河西金先生神道碑銘」, “國朝人物 道學節義文章 忒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 天佑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 2) 김인후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 참고할 만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백승중, 「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 비정치적 일상의 정치성」,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001, pp.93-129; 고영진, 「하서학과 호남사림의 동향」, 『국학연구』 7, 한국국학진흥원, 2005, pp.79-109; 하서학술재단 편,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2·3집, 하서학술재단, 1994·2000·2005.
- 3) 김인후의 서예에 대해서는 3편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정애리자, 「河西 金麟厚의 書藝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찬수, 「河西 金麟厚의 書藝精神과 作品世界」,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정란, 「河西 金麟厚의 書藝美 研究」,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김인후의 초서에 집중한 연구는 유지복, 「김인후의 초서와 예술적 성취」, 『호남문화연구』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pp.265-306 참조.

서예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논란이 있는 《백련초해》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김인후의 서예를 도학자와 서예가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가 도학자로서의 이상을 서예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그리고 전래 서풍을 어떤 방식으로 변용해 갔는지, 아울러 그가 추구한 일탈의 기상이 초서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16세기 서예사에서 김인후의 서예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載道로서의 서예

김인후의 진적으로 1549년에 쓴 <己卯諸賢手筆序>(그림1)가 전한다. 기묘사화에 연루되었던 명현들의 시문을 모은 《己卯諸賢手筆》에 수록되어 있는 김인후의 서문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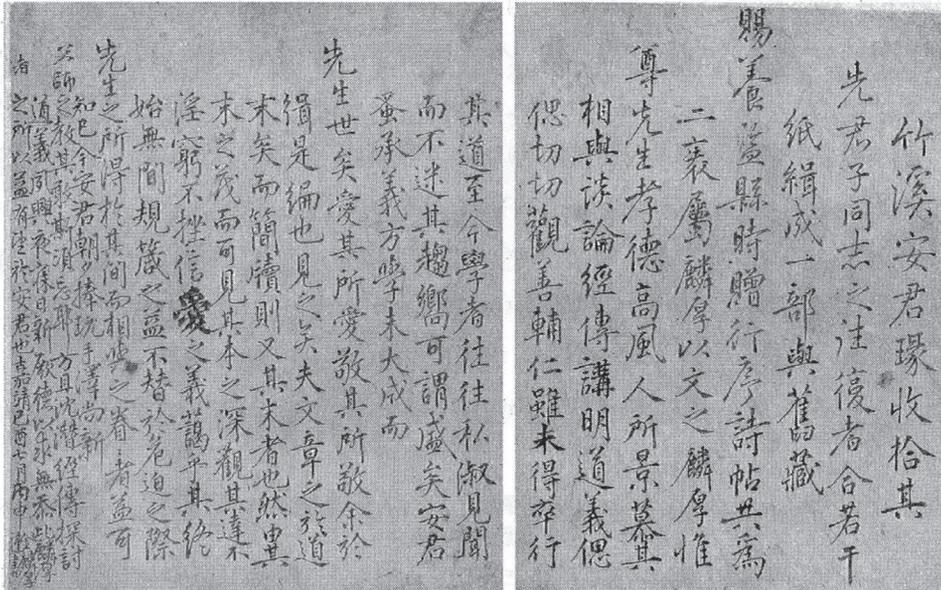


그림1. 김인후, <己卯諸賢手筆序>, 1549년, 종이에 먹, 《己卯諸賢手筆》, 남원 순흥안씨 종중.

4) 도판은 국학진흥연구사업진흥위원회 편, 『己卯諸賢手筆 己卯諸賢手帖』(한국간찰자료선집10 남원 순흥안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p.16-1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기묘명현의 꿈과 우정, 그리고 기억』,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p.211 참조.

《己卯諸賢手筆》은 《己卯諸賢手帖》과 함께 남원 순흥안씨 종중에 소장되어 있는 서첩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安處順(1492-1534)이 기묘사화의 시기를 전후하여 이른바 기묘명현으로 불리는 동료 및 선후배로부터 받은 시문과 간찰을 모아놓은 서첩이다. 《기묘제현수필》은 안처순이 1517년 구례현감으로 부임할 때 24명의 동료가 써준 31편의 전별 시문을 수록하였고, 《기묘제현수첩》은 1517년부터 1531년까지 12명의 벗이 보낸 41통의 간찰을 수록하였다.⁵⁾

김인후가 쓴 <기묘제현수필서>는 1549년에 안처순의 아들 安瑒의 부탁을 받고 지어준 서문으로, 김인후의 문집에도 그 원문이 실려 있다.⁶⁾ 김인후의 서문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맨 앞에는 竹溪 安瑒이 부친과 동지들이 주고받은 서간[기묘제현수첩]을 수습해서 한 부로 편집하고, 예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부친 안처순이 현감 제수 때 동료들로부터 받은 전별첩[기묘제현수필]과 함께 두 질로 만든 뒤 자신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내용을 써놓았다. 다음으로는 안처순이 제현과 함께 실현하길 바랐던 道義를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동지들과 주고받은 간독을 통해 信愛의 의리와 規箴의 유익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선친과 동료들의 가르침을 잠시도 잊지 말고 경전에 침잠하고 도의를 토론하여 날로 덕을 새롭게 하여 욕됨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써놓았다.⁷⁾ 선현들에 대한 견문을 사숙하고 날로 덕성을 길러 기묘제현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 중에 ‘道’와 ‘文’에 대한 김인후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5) 안승준, 『己卯諸賢手筆·手帖』의 내용과 성격, 『己卯諸賢手筆 己卯諸賢手帖』,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p.185-194; 김덕수,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제작과 확산,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9권 3호(통권 14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pp.201-238 참조.

6) 문집에는 ‘己卯諸賢帖序’라는 제목 옆에 ‘舊集作跋而今得先生手筆本以正之’라는 내용의 부주가 달려있다. 이를 통해 김인후의 문집 초간본에는 ‘己卯諸賢帖跋’이라는 제목의 발문으로 간행되었다가 후에 친필본을 본 뒤 서문[序]으로 수정했음을 알 수 있다.

7) 金麟厚, 『河西全集』 권11, 『己卯諸賢帖序[舊集作跋而今得先生手筆本以正之]』, “竹溪安君瑒收拾其先君子同志之往復者 合若干紙 緝成一部 與舊藏賜養監縣時贈行序詩帖 共爲二表 屬麟厚以文之 麟厚惟尊先生孝德高風 人所景慕 其相與談論經傳 講明道義 惓惓切切 觀善輔仁 雖未得卒行其道 至今學者往往私淑見聞 而不迷其趨嚮 可謂盛矣 安君早承義方 學未大成 而先生下世矣 愛其所愛 敬其所敬 余於緝是編也 見之矣 夫[舊本無夫] 文章之於道 未矣 而簡牘則又[舊本作尤] 其末也 然由其末之茂而可見其本之深 觀其達不淫窮不挫 信愛之義 藹乎其終始無間 規箴之益 不替於危迫之際 先生之所得於其間 而相與之眷眷者 益可知已 今安君 朝夕捧玩 手澤尙新 父師之教 其敢斯須忘耶 方且沈潛經傳 探討道義 夙興夜寐 日新厥德 以求無忝 此麟厚之所以益有望於安君也 嘉靖己酉七月日 河西金麟厚 謹序.”

무릇 문장이란 도에 있어서 말단이고, 간독은 더욱 그 말단이다. 그러나 그 말단의 무성함을 말미암아 그 근본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것이다.⁸⁾

송의 철학자 周敦頤가 ‘文以載道’를 주창한 이래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은 문장을 도를 담는 도구로 인식하였다. 鄭道傳이 문장을 ‘載道之器’라 칭한 것은 ‘文’과 ‘道’에 대한 여말선초 문인들의 인식을 대변한다.⁹⁾ 이는 ‘도’를 인류에 근간을 둔 궁극의 이상세계로 보고 ‘문’을 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본 것이다.

김인후 역시 당시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를 근본으로 여기고 ‘문’을 말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이 무성해야 ‘도’의 깊은 경지를 볼 수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는 ‘도’의 실체가 ‘문’을 통해 나타나며 ‘문’에는 ‘도’의 실체와 깊이를 담고 있다고 봄으로써 ‘도’의 표현수단으로서 ‘문’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¹⁰⁾

조선시대의 문인들에게 서예는 줄곧 말단적인 기예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문장이 도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書’ 또한 ‘문’과 더불어 도를 실현해나가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했음을 아래 尹根壽(1537-1616)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묘제현들의 한때 논의에 따르면 문장은 漢나라를 본받아야하고, 글씨는 晉나라를 본받아야하고, 시는 唐나라를 배우고, 인물은 宋나라의 유학자들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金淨·金絳·奇遵 등과 같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김정과 기준의 시는 유집이 모두 남아있어 이를 가져다 보면 과연 당나라의 음조이다. 참의(김정)는 초서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요컨대 그의 글씨는 晉人の 풍격을 갖췄고 楷書는 王羲之·王獻之가 남긴 筆意를 완전히 터득하였다.¹¹⁾

윤근수는 기묘제현이 문학에서는 漢의 문장과 唐詩를 본받고 글씨는 晉을 본보기로 삼아 복고의 가치를 내세웠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글씨에 있어서는 기묘제현이

8) 주석7 밑줄 부분 참조.

9) 鄭道傳, 『陶隱集』, 『陶隱先生詩集序』.

10) 김인후의 ‘문’과 ‘도’에 관한 인식은 구사희,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韓國文學研究』 1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9, pp.6-9 참조.

11) 尹根壽, 『月汀集』 別集 권4, 『漫錄』, “己卯諸賢一時之論 以爲文則法漢 書則法晉 詩則學唐 人物則當以宋諸儒爲準 如金元冲·金大柔·奇子敬輩是已 冲庵德陽之詩 則其遺集具在 人得而見之 固是唐調 參議草書有盛名 要是晉人風格 楷字宛得羲獻遺意.”

東旣 왕희지 부자, 즉 二王의 필법을 書의 궁극의 경지로 여겨 이왕의 시대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이하 《수필》과 《수첩》으로 약칭)에 김정희의 글씨가 실려 있는데 유려한 초서로 써어 있다.¹²⁾ 다만 윤근수의 말대로 김정희의 초서가 이왕의 풍격을 갖췄다고는 말할 수 없다. 16세기 초에 유입되었던 명대의 초서풍이 질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기묘제현이 글씨의 전범으로 주창했던 이왕의 필법은 시·문의 복고 풍조와 함께 표방했던 ‘서’의 모형이었지 실제로 당시에 나타난 글씨의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묘제현의 글씨 중 초서는 명대의 초서풍을 따르는 한편, 해서와 행서는 이왕의 글씨를 전범으로 삼아 익힌 필적이 남아있는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³⁾

김인후가 글씨의 효용을 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 문인이라는 점에서 기묘제현이 주창했던 바와 같이 ‘서’에 있어서는 이왕으로의 복고를 따르는 한편, ‘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의 기능을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인후가 <기묘제현수필서>에서 언급한 ‘도’와 ‘문’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김인후의 <기묘제현수필서>의 글씨는 해서를 기반으로 행서가 약간 섞여 있다. 딱히 누구의 서풍을 따랐다고는 할 수 없으나 왕희지 해서와 행서의 필법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필적은 서예 작품이라기보다는 기묘제현이 지키고자 했던 도의 가치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재도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는 필적이다. 기묘제현이 경전을 담론하고 도의를 강구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랐던 열망이 담긴 《수필》과 《수첩》은 이후 다양한 모사본이 제작되었다.

서화가이자 금석수집가였던 趙涑(1595-1668)은 기묘제현의 필적을 임서하여 《己卯諸賢帖》을 만들었다. 조속의 임서본을 감상한 宋時烈은 1659년에 이에 대한 발문을 남기며 “조속이 수집한 이른바 ‘己卯帖’은 문장, 글씨, 사람, 희귀성을 모두 겸비한 서첩이고, 그가 임서한 제현의 글씨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똑같았다.”고 하였다. 이는 조속의 필예가 워낙 뛰어난 원인도 있겠지만, 그가 제현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심획을 제대로 얻은 것이라고 평하였다.¹⁴⁾ 조속이 수집

12) 김정희의 초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앞의 책, 2020, p.143, 187 참조.

13) 그 대표적인 예로 김구가 왕희지의 <난정서>를 임서한 목판본 필적(《自菴書法》첩, 예산 광산 김씨 대흥공파 문의공 종중 소장본)을 들 수 있다. 도판은 이완우, 「자암 김구의 서풍」(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앞의 책, 2020, p.292).

14) 宋時烈, 『宋子大全』 권146, 「滄江趙丈臨己卯諸賢帖跋」, “滄江趙丈於物無所好 獨遺文古事 網羅無遺

해 임서했다는 ‘기묘첩’은 《수필》과 《수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쉬운 것은 그가 똑같이 임서했다는 《기묘제현첩》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필》과 《수첩》을 모사한 후모본은 대부분 기록만 있고 현존본은 3종 밖에 남아있지 않다.¹⁵⁾ 그 가운데 《수필》과 《수첩》을 모두 임모하고 제현의 필적을 비슷하게 모사한 것은 평양부윤 都慶俞(1596-1637)가 1636년에 모사한 《己卯諸賢書牘》이 유일하다.¹⁶⁾



그림2. 都慶俞, <己卯諸賢手筆序> 부분, 모사본, 1636년, 종이에 먹, 《己卯諸賢書牘》, 星州都氏 屏巖宗中.

김인후의 서문을 임모한 모사본 <기묘제현수필서> (그림2)는 필치는 다르지만, 대두와 행간과 자간이 김인후가 쓴 원본과 유사해 가능한 한 그대로 베껴 쓰려고 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17세기 초반 조속과 도경유가 《수필》과 《수첩》을 모사한 서첩이 존재했다는 것

或以文 或以筆 或以其人 或以其古而稀也 惟所謂己卯帖者 可謂兼之矣 …趙丈早有臨池癖 遂臨其帖 各家之書 無爽於初 雖其筆藝之妙 而亦其好之篤愛之深 故各得其心畫也如此。”

15)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모사본으로 현존하는 것은 都慶俞의 《己卯諸賢書牘》, 19세기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자 미상의 《先祖筆跡及書簡》(대전시립박물관), 《己卯諸賢手帖》(연세대학교 도서관) 3종이 있다. 이에 관한 개략은 김덕수,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제작과 확산, 『기묘명현의 꿈과 우정, 그리고 기억』,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pp.277-285.

16) 《기묘제현서독》은 星州都氏 屏巖宗中 소장으로, 李栻(1584-1637)이 모사한 《기묘제현서첩》을 도경유가 재차 모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도경유가 남긴 발문에 자세하다. 都慶俞, 『洛陰文集』 권3, 『跋己卯諸賢書牘後』.

은 기묘제현에 대한 존숭이 문인들의 마음속에 계승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수필》과 《수첩》은 이후 趙寅永과 趙性敎의 발문을 추가해 1875년에 《己卯諸賢手筆》이란 목판본으로 모각 간행되었다. 표제는 “己卯諸賢手筆”이라고 대자로 쓴 石峯 韓濩의 해서 글씨를 새겨 넣었다. 당시 새졌던 목판 실물은 지금도 남원 순흥안씨 집안에 전해지고 있다. 모각본의 말미에 김인후의 친필 발문을 모각한 필적(그림3)이 실려 있다. 글씨와 내용은 김인후가 안전의 부탁을 받고 1549년에 써준 필사본 <기묘제현수필서>와 동일하다. 다만 모각본 《기묘제현수필》에는 서문으로 전해지던 김인후의 필적이 발문으로 편집돼 모각본의 가장 말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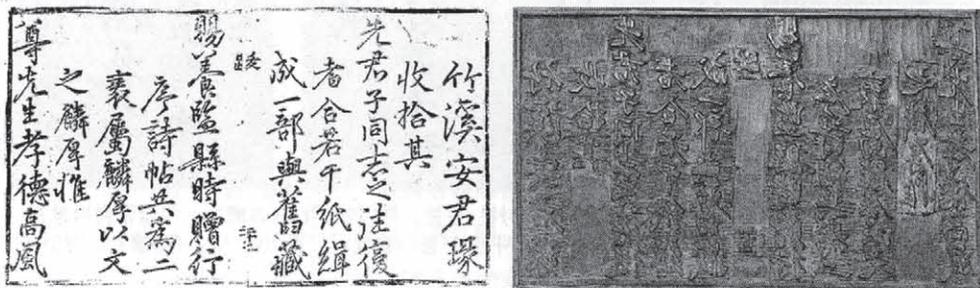


그림3-1(좌). 김인후, <己卯諸賢手筆跋>, 1875, 모각본, 국립중앙도서관.
그림3-2(우). 김인후, <己卯諸賢手筆跋>, 1875, 모각본 목판, 남원 순흥안씨 종중.

《수필》과 《수첩》에 실린 제현의 글씨 중에서도 김인후의 서문 필적은 유독 김인후가 직접 쓴 것처럼 모사된 후모본이 간찰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승모의 뜻으로 베껴 쓴 단순한 모사인지 위작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간찰첩에 김인후가 1549년 7월에 죽게 안전에게 보낸 서찰로 소개된 필적(그림4)과 예술의전당의 전시에서 <書簡>으로 소개된 필적(그림5)이 그러한 사례이다.¹⁷⁾

이들 필적이 소개될 때만 해도 《수필》과 《수첩》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거기에 수록된 글씨와 내용도 학술적인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사본의 등장이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어쨌든 이런 모사본의 존재는 역설적이게도 기

17) <그림 4>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간찰첩 《古簡》(동원3389)에 수록된 것으로, 내용은 《기묘제현수필》에 실린 서문과 동일하다. 국립광주박물관 편,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증보판), 필암서원, 2020, pp.74-75. <그림 5>는 개인소장 《簡牘》첩 내에 김인후 서문 중 마지막 부분(“父師之教…金麟厚謹書”)만 모사한 필적이 간찰로 소개되었다. 예술의전당 편, 『퇴계 이항』, 예술의전당, 2001, p.285 참조.

묘제현의 정신을 계승한 김인후의 위상과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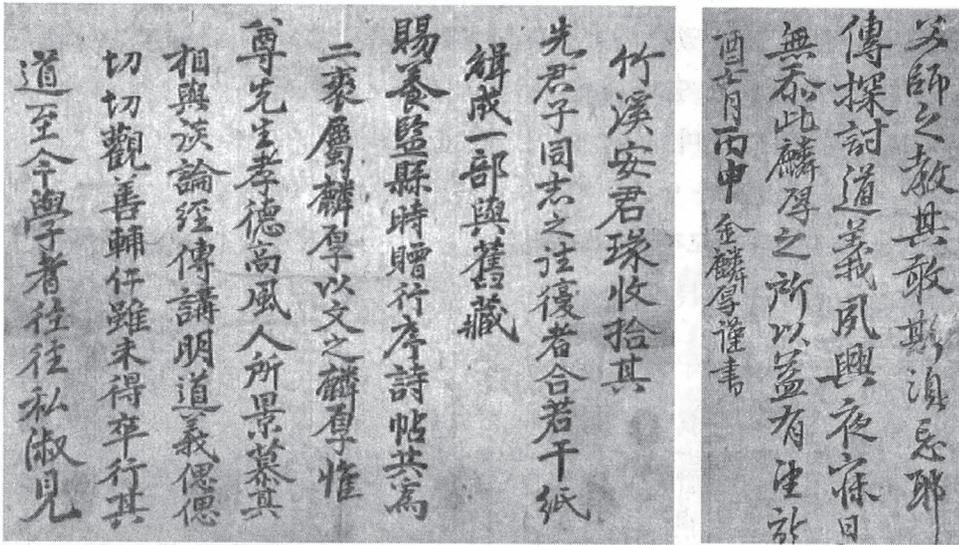


그림4(좌). 서자 미상, <己卯諸賢手筆序> 모사본 부분, 종이에 먹, 《古簡》, 국립중앙박물관.
그림5(우). 서자 미상, <己卯諸賢手筆序> 모사본 부분(<書簡>), 종이에 먹, 《簡牘》, 개인.

목판에 새긴 김인후의 모각 필적 중에는 송나라 朱熹의 「武夷九曲歌」(원제 武夷權歌) 10수 등을 쓴 《武夷九曲歌帖》이 있다. 김인후가 해서로 쓴 글씨를 목판에 새겨 인출한 서첩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목판본 서첩에는 <무이구곡가> 외에 김인후가 제자이자 사위 趙希文(1527-1578)과 梁子澂(1523-1594)에게 지어준 다섯 수의 시와 당·송시를 쓴 필적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표1 참조). 대부분 <무이구곡가>가 첩의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고 김인후의 시와 당·송시가 그 뒤에 편차되어 있지만, 순서는 첩마다 약간의 이동이 있다.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첩의 명칭은 일정치 않아서 ‘河西先生武夷九曲歌’(국립중앙도서관), ‘河西先生遺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河西筆蹟’(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 제각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편의상 ‘武夷九曲歌帖’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무이구곡가첩》에 수록된 글씨는 모두 70면이고,¹⁸⁾ 목판 1장에 2면을 새긴 18장의 목판이 현재 필암서원에 소장되어 있다.¹⁹⁾

18) 《무이구곡가첩》은 소장처마다 인출된 면수에 차이가 있다. 河西先生紀念事業會 편, 『國譯河西全集』(下), 서울: 寶晉齋, 1988, pp.543-612에 「河西遺墨」이란 명칭으로 《무이구곡가첩》 70면 전체가 실려 있어 참고 된다.

<표1> 《武夷九曲歌帖》 수록 내용

순번	면수	내용	형식	출전 및 특기사항
1	1~10	宋 朱熹의 「武夷九曲歌」 10수	칠언절구	
2	11	「吟示景范仲明」 其十八[書武夷九曲後]	칠언절구	『河西全集』 권6
3	12~13	「吟示景范仲明」 解武夷九曲	칠언율시	『하서전집』 권10
4	14	「吟示景范仲明」 其二十[解二曲]	칠언절구	『하서전집』 권6
5	15	「吟示景范仲明」 其二十一[解三曲]	칠언절구	『하서전집』 권6
6	16	「吟示景范仲明」 其六	칠언절구	『하서전집』 권6
7	17~24	당 杜甫의 「古栢行」	칠언고시	
8	25~37	당 李白의 「蜀道難」	칠언 악부시	
9	38~46	당 韓愈의 「嗟哉董生行」	고풍 악부시	『小學』 善行篇
10	47~51	송 歐陽修의 「六月十四夜飛蓋橋翫月」	오언고풍	
11	52~56	송 蘇軾의 「月夜與客飲酒杏花下」	칠언고풍	행·초서
12	57~63	당 두보의 「哀江頭」	칠언고풍	
13	64~70	당 두보의 「陪王侍御宴」	오언장편시	

《무이구곡가첩》은 모두 해서로 썼고 송 蘇軾의 「月夜與客飲酒杏花下」만 행서와 초서를 섞어 썼다. 첩의 맨 앞에는 주희의 「무이구곡가」 10수를 해서로 쓴 필적이 실려 있다.

「무이구곡가」는 주희가 55세(1184)에 武夷山을 유람하고 지은 민간악부 풍의 연작시이다. 주자학을 교조로 삼았던 조선의 유학자, 특히 도학자들은 주희의 무이산을 학문과 정신의 절대 이상향으로 여겼고, 그가 읊은 「무이구곡가」를 도학적 세계의 형상화로 해석하려고 하였다.²⁰⁾ 또한 주희의 무이구곡을 모방하여 구곡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자신의 이상향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武夷九曲圖류의 그림을 수용하여 <高山九曲圖>를 비롯한 조선의 풍경을 담은 구곡도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²¹⁾

19) 1998년에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에서 조사한 목판의 크기는 23.5×54.5cm이다. 송일기, 『全南 書院의 木板』,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 1998, p.80.

20) 김태완, 「주희(朱熹)의 「무이도가(武夷權歌)」와 조선 도학자의 반응」, 『한국문화와 예술』 24, 한국문화과학연구소, 2017, p.185.

21) 조선시대 구곡도의 수용과 전개에 관해서는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受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218, 한국미술사학회, 1998, pp.61-91;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김인후는 주희의 「무이구곡가」를 학문에 나아가고 도에 들어가는 次第로 파악하였다. 김인후의 이런 경향은 그가 위낙 시의 효용을 ‘載道之器’로 보는 載道說의 신봉자인데다 당시 유행하던 「무이구곡가」의 주석서인 『權歌詩註』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이구곡가」의 작자가 바로 사람들이 숭앙하던 주자였으므로, 「무이구곡가」를 시의 전범으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聖詩로까지 보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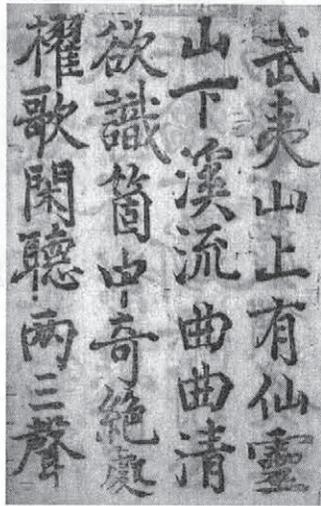


그림6. 김인후, <武夷九曲歌>
제1수, 목판본,
《武夷九曲歌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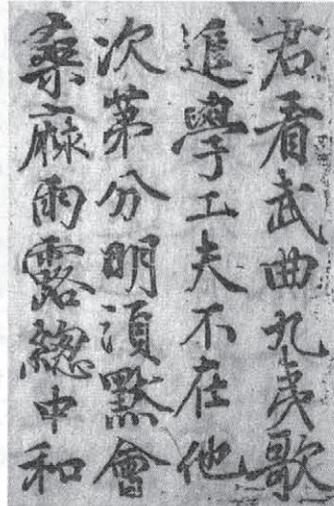


그림7. 김인후,
<書武夷九曲後>, 목판본,
《武夷九曲歌帖》

“무이산 위에는 신선이 살고 있고, 산 아래엔 찬 냇물이 굽이굽이 맑구나[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로 시작되는 <무이구곡가>(그림6)는 근엄한 필치의 해서로 씌어있다. 대체로 동시대 李滉의 해서와 마찬가지로 왕희지의 <黃庭經>에 바탕을 두고 세로로 긴 자형을 보인 해서풍과 유사하다.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한 16세기 도학자들은 주희가 “붓을 잡아 터럭을 적시고 종이를 펴 글씨를 쓰되, 마음이 전일하게 그 사이에 있어야 점과 획들을 이룬다. 뜻을 함부로 하면 거칠어지고 고운 것만 취하면 미혹하게 되니, 반드시 바른 마음으로 꾸준히 써서 그 덕을 신명하게 해야 한다.”고 경계한 필법을 염두에 둔 듯 글씨를 씌에 있어 순간의 흥취와

], 『역사와 경계』 61, 부산경남사학회, 2006, pp.1-24.

22) 김인후의 무이구곡가 수용은 이민홍, 「武夷權歌」受容을 통해 본 士林派文學의 一樣相 -退溪·河西·高峯을 中心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6, 한국한문학회, 1982, pp.28-32.

외형의 미를 경계하였다.²³⁾ 이는 글씨를 쓰는 행위 역시 도학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본 것으로, 김인후의 <무이구곡가> 의 엄정한 필의에서 그런 태도가 잘 드러난다.

무이구곡가 뒤로는 김인후가 그의 문인이자 사위인 趙希文과 梁子澗에게 도학의 실천을 바라며 지어준 聯詩 다섯 수가 있다. 그 중 네 수는 주희의 「무이구곡가」에 대해서 김인후가 자신의 생각을 시로써 해설한 것으로 문집에는 「書武夷九曲後」라는 부제가 따로 붙어있다. <書武夷九曲後>(그림7)는 「무이구곡가」을 해설한 연시 중 「書武夷九曲後」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4수 중 첫 수에 해당한다.

그대는 무이산 구곡 노래를 보았는가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학문의 차례가 분명하니 묵묵히 체득해야지
 뽕과 삼이 우로에 젖어 모두가 中和로다.²⁴⁾

마지막 구의 ‘뽕과 삼이 우로에 젖어 모두가 중화[桑麻雨露總中和]’라는 말은 주희의 「무이구곡가」 제9곡에 “막다른 골에서 눈이 활짝 트이니, 뽕과 삼이 우로에 젖어 평평한 들판에 보이네[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라는 시구를 인용한 것으로, 李瀾(1681-1763)은 이 구절을 “가장 높은 도의 경지는 뽕이나 삼을 늘 재배하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묘사한 것이다.” 하였다.²⁵⁾

<書武夷九曲後>의 다음에 이어지는 필적은 문집에 ‘解武夷九曲’이라는 부주가 달린 칠언율시로, 역시 김인후가 주희의 「무이구곡가」의 내용을 빌어 조희문과 양자징에게 준 시이다. 그 내용은 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먼저 색을 멀리하고 속절없는 인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시작해 풍광이 수려한 桃源을 찾아 나서지 말고 인간 세상 속에 별천지가 있음을 깨달을 것을 주문하였다.²⁶⁾ 이는 앞선 필적 <書武夷九曲後>에서 도를 실현할 곳은 바로 일상이라는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다.

23) 朱熹, 『晦菴集』 卷85, 「書字銘」, “握管濡毫 伸紙行墨 一於其間 點點畫畫 放意則荒 取妍則惑 必有事焉 神明厥德.”

24) 金麟厚, 『河西全集』 권6, 「吟示景范仲明」 其十八[此以下 書武夷九曲後], “君看九曲武夷歌 進學工夫不在他 次第分明須默會 桑麻雨露總中和.”

25) 李瀾, 『星湖全集』 권56, 「書武夷九曲圖」, “末曲謂道之極處 不離乎日用人倫之間 如桑麻之常業.”

26) 金麟厚, 『河西全集』 권10, 「吟示景范仲明」, “好意看他望道時 先從遠色舍生推 金鷄水月如真識 煙雨平林又却疑 涵養熟來能制動 見聞高處不忘卑 功虧一篑尤加戒 莫向桃源別路移[解武夷九曲].”

이 필적 다음으로는 주희의 「무이구곡가」 중 제2곡의 내용을 해설한 시가 실려 있다. “외물에 가려지는 것은 보는 것이 가장 먼저지만 그중에도 고운 색은 마음이 동요되기가 쉽다.”고 경계하여 도의 본연에 나아갈 것을 독려한 내용이다.²⁷⁾ 다음으로는 주희의 「무이구곡가」 제3곡을 해설한 시로, 志士는 항상 구렁에 시신이 될 각오를 가짐과 동시에 몸을 닦고 고요히 때를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다.²⁸⁾ 이는 맹자가 말한 “지사는 시신이 도랑에 버려지는 것을 잊지 않고, 용사는 자기 머리를 잃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²⁹⁾ 절의를 위해 희생한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하길 바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사서 중 大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인을 이루는 공은 대학 말고는 강구하기 어렵다 하고, 많이 읽고 정밀하게 생각할 것을 강조한 내용의 시가 실려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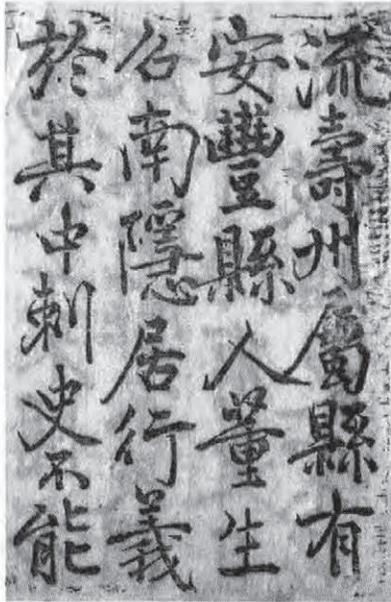


그림8. 김인후, <嗟哉董生行>, 목판본, 《武夷九曲歌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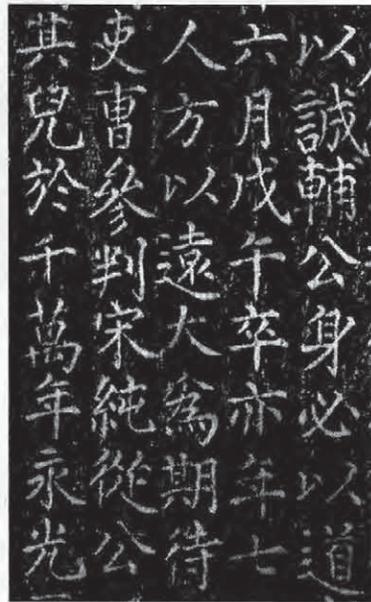


그림9. 김인후, <金齡墓碣銘> 부분, 탑본, 38.7×25cm, 《金石清玩》, 국립중앙박물관.

27) 金麟厚, 『河西全集』 권6, 「吟示景范仲明」其二十[解二曲], “外物交前視最先 中間艷色易流遷 行庭不見良其背 一味從今向本然.”

28) 金麟厚, 『河西全集』 권6, 「吟示景范仲明」其二十一[解三曲], “志士恒存溝壑心 明昏相代古猶今 修身靜俟無他念 不比空投餓虎林.”

29) 『孟子』, 「滕文公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30) 金麟厚, 『河西全集』 권6, 「吟示景范仲明」其六, “大學人皆淺近看 聖功非此講求難 須知節節工夫在 熟讀精思莫漫觀.”

김인후의 《무이구곡가첩》 중 사위 조희문과 양자징을 위해 써준 다섯 수의 필적 뒤로는 당송시 7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嗟哉董生行>(그림8)은 시골에서 포의로 주경야독하며 청빈한 삶을 사는 董召南을 찬양한 韓愈의 「嗟哉董生行」을 쓴 필적이다. 이 시는 『小學』 善行篇에도 실릴 정도로 효행과 청빈의 삶을 상징하는 인물로 추앙되며 많이 애송되었다.

김인후의 <嗟哉董生行>은 《무이구곡가첩》에 실린 앞선 글씨에 비해 등근 원필, 그리고 가로획의 기필과 수필이 강조되는 이른바 ‘蠶頭馬蹄’의 점획법을 구사해 唐의 顏眞卿 또는 柳公權의 필법이 언뜻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후의 河西書蹟을 보고 남긴 申欽(1566-1628)의 발문이 주목된다. “학문과 문장이 이미 당세에 높이 뛰어났고, 餘技인 글씨도 顏眞卿과 柳公權이 남긴 법을 얻었으니, 하늘로부터 품부받았음을 족히 볼 수 있다.”는 평이다. 그리고 발문의 말미에 이 글씨를 나주 목사로 있던 朴東說(1564-1622)이 목판에 새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³¹⁾ 박동열이 목판으로 간행하고 신흙이 발문을 남긴 김인후의 필적이 《무이구곡가첩》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인후의 모각 필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안진경·유공권의 서풍과 관련이 있는 필적은 《무이구곡가첩》이 유일하다. 따라서 신흙이 감상평을 남긴 하서필적은 《무이구곡가첩》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가정한다면 《무이구곡가첩》은 박동열이 나주 목사로 있던 1611년에서 1613년 사이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³²⁾

김인후의 해서 필적으로 유일하게 석비에 새겨진 <金齡墓碣銘>(그림9)의 탐본이 전한다. 김인후가 부친 金齡의 묘갈을 직접 쓴 글씨로, 趙涑이 17세기 중반경 제작한 《金石清玩》에 탐본 일부가 실려 있다.³³⁾ 원비는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뒤편의 하서 묘역 바로 위에 있었는데, 석비가 오래돼 자획이 불분명하여 1926년에 새로 비를 세웠다고 한다.³⁴⁾ <김령묘갈명> 역시 등근 원필과 파임에서 안진경의

31) 申欽, 『象村集』 권36, 「河西書蹟跋」, “河西金公之筆也 竊聞前輩長者論乙巳名賢 莫不以河西爲稱首 蓋以河西見幾於急流中 不竣終日 而得爲元祐完人也 學問文章 既迥出當世 而翰墨餘技 又得顏柳遺法 足見稟於天者全 恨不竝生一時 接風槩而聆緒論 九原可作 微公吾誰與歸 朴羅州說之氏梓而傳之 其亦曠世相感也夫.”

32) 박동열이 나주 목사에 제수된 것은 1611년 8월이었다. 이직한 시기는 실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1613년 6월에 무녀가 裕陵에 저주한 사건에 연루되어 공초를 받은 일이 있어 그 즈음으로 추정된다. 『광해군일기[중초본]』 권43, 광해 3년(1611) 7월 30일 정묘; 『광해군일기[정초본]』 권67, 광해 5년(1613) 6월 29일 병진.

33) 宋純, 『俛仰集』 권4, 「學生金公墓碣銘」에 <김령묘갈명>의 원문이 실려 있다.

34) 『장성군민신문』(2022. 08. 23), 「백화정 뜰에 서면 자연가 들리는 듯」.

해서풍을 엿볼 수 있다. 다만 16세기 초반 퇴계 이황을 비롯한 도학자들이 魏晉으로의 복고를 주장하며 왕희지의 글씨를 전범으로 여겼듯이 김령의 묘갈명에서도 안진경의 획법이 부분적으로 가미되어있을 뿐, 전체적인 자형은 왕희지 해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16세기 초반의 필적 중 안진경의 획법을 보인 예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김인후가 절의와 충신의 표상으로서 안진경의 획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인후의 행장과 가장 및 신도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인후는 1540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543년 봄에 박사 겸 세자시강원의 說書로 임명되어 세자로 있던 인종의 스승이 되었다. 인종은 김인후에게 『朱子大全』 1절을 하사하고 목죽도를 그려주며 은미한 뜻을 보였고, 김인후는 인종의 목죽도에 시를 지어 사례하였다.³⁵⁾ 이후 김인후의 제시가 씌어진 <仁宗大王墨竹圖>(그림10-1)가 판각되어 여러 차례 인출되었는데, 현재 인종의 목죽도 원본은 전하지 않고 판각만 남아있다.



그림10-1. 仁宗, <仁宗大王墨竹圖>, 목판본, 97.5×62.3cm, 국립광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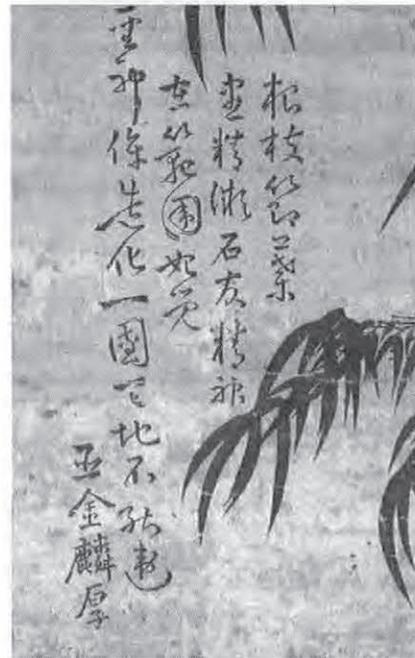


그림10-2. 김인후, <仁宗墨竹圖題詩> 부분, 목판본, 국립광주박물관.

35) 金麟厚, 『河西全集』附錄 권1, 「行狀(朴世采作); 「家狀(梁子澂作); 「神道碑銘(宋時烈作).

김인후의 <仁宗墨竹圖題詩>(그림10-2)는 칠언절구로 묵죽도 왼쪽 하단에 써어 있다. 김인후 문집에는 ‘應製題睿畫墨竹’이란 제목에 ‘癸卯’라는 부주가 달려있다. 인종이 즉위하기 2년 전인 1543년 왕세자로 있을 때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뿌리 가지 마디 잎이 모두 정미하고
 돌처럼 굳센 정신이 그 안에 있네
 이제야 알겠네 성스러운 마음이 조물주와 같아
 천지가 한 덩이로 어김없이 뭉쳤음을³⁶⁾

김인후는 그림 속의 대나무를 인종에 비유하고 돌은 충성스런 신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 것 같다. 훗날 성대한 덕치를 베풀 인종과 이를 굳은 절의로 떠받들 신하를 그리며 이상적인 군신관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담겨있다.

훗날 宋時烈은 인종과 김인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김인후가 세자로 있던 인종의 사부로서 직임을 맡고 있을 때 인종은 김인후의 도덕과 학문의 훌륭함을 깊이 알아 성심으로 예우를 다하였고, 김인후 역시 인종의 덕이 천고에 뛰어나 훗날 堯舜의 至治를 이룰 것을 의심하지 않아 군신간의 대우와 기대가 날로 더욱 커졌다고 하였다.³⁷⁾ 송시열의 이런 평가는 세자였던 인종이 사부 김인후에게 대나무와 돌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주고, 김인후가 그 그림에 화답하는 제시를 남겨 대의 기상과 돌의 절의로 군신의 의리를 상징한 데서도 동일한 뜻을 찾을 수 있다.

신흙은 하서서적에 이어 인종의 묵죽도를 감상하고 발문을 남겼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인종의 묵죽도 역시 나주 목사로 있던 박동렬이 목판에 새겨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³⁸⁾ 그의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1611년에서 1613년 사이에 이 묵죽도의 판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묵죽도의 목판 간행과 관련하여 孝陵(인종 왕릉) 참봉으로 있던 兪肅基가 1736년(영조 12)에 남긴 발문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 묵죽을 직접 그려 김인후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각본만

36) 金麟厚, 『河西全集』 권6, 「應製題睿畫墨竹」, “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不能違.”

37) 金麟厚, 『河西全集』 卷首, 「河西先生全集序」(宋時烈作), “時仁宗大王毓德春宮 中宗大王專委輔導之任 仁廟深知先生道德學問之懿 誠心敬禮 召對頻仍 先生亦以爲潛龍之德 度越千古 異日唐虞之治 必臻無疑 際遇日益昭融 期待日益隆重.”

38) 申欽, 『象村集』 권37, 「仁宗大王墨竹跋」, “此乃仁宗大王御墨也 其下有臣金麟厚所撰絕句一首 … 朴羅州東說氏壽之梓 以廣其傳 可謂忠之則也.”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 각본은 김인후의 후손 金胄賢이 효릉 참봉으로 있을 때 재실에 보관해두었던 것인데, 세월이 오래돼 훼손되자 효릉 참봉의 후임으로 왔던 유숙기가 새로 改粧한 것이라는 내용이다.³⁹⁾ 김주현이 효릉 참봉에 제수된 것은 1704년(숙종 30)이다.⁴⁰⁾ 따라서 1704년 이래로 인종의 목죽도 목판과 각본(인출본)이 효릉 재실에 줄곧 보관되어왔고, 이후 영조대에 이르러 유숙기의 각본 개장과 함께 여러 벌의 인본이 반출되었다.⁴¹⁾

그런데 이후의 기록에 의하면 1796년에 김인후의 9세손으로 예빈시 봉사로서 있던 金直休의 집안에서 그때까지 인종의 목죽도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고, 장성의 필암서원에는 모본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⁴²⁾ 이를 종합해볼 때 인종의 목죽도 원본은 18세기 말까지 김인후 후손가에 전해져오다 이후 소재를 잃었고, 목판에 새긴 판각과 인본은 효릉 재실에 보관되어 오다 18세기 후반에 필암서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⁴³⁾

목죽도에 씌어진 김인후의 <인종목죽도제시>는 행서와 초서가 섞인 필적으로, 각판에 새겨진 것이라 서풍을 논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학의 실천적 도덕 강목으로서 군신 간에 지켜야 할 의리가 함축적으로 응집되어있는 필적이다. 그가 기묘제현의 필첩에 서문을 쓰며 문을 도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인식한 점, 주희의 무이구곡가를 학문에 나아가고 도에 들어가는 차제로 설명한 점, 인종대왕이 하사한 목죽도에 이상적인 군신관계에 대한 기대를 담은 점 모두 그가 서를 통해 도를 구현하고자 했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9) 金麟厚, 『河西全集』 부록 권2, 「御畫墨竹跋(俞肅基作)」, “嗚呼 此我仁宗大王在東宮時 亦嘗揮染 以賜先正臣金麟厚者 而今此有刻本傳於世 蓋聞先正之後孫胄賢 嘗爲本陵郎 以此藏之齋舍云 而歲久頗殘缺 及臣待罪於茲 改其粧而新之 時出而展玩 有見聖祖之天縱多能 …丙辰八月朔朝 朝奉大夫孝陵參奉臣俞肅基稽首謹跋.”

40)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3월 8일 정미.

41) 『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 8월 28일 경신.

42)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6월 23일 정유.

43) 현재 <인종대왕목죽도> 목판은 서로 다른 3종이 필암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인종대왕이 목죽도 원본을 김인후에게 하사한 이후 3차례에 걸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각판은 판목의 원편 하단부에 “崇禎紀元後三庚寅季春重刊”이라는 간기가 있어 1770년(영조 46)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일기, 『전남 서원의 목판』,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 1998, p.82-83.

III. 전래 서풍의 變容

김인후의 글씨 중에는 당시 전래되던 서로 다른 서풍을 섞어 자신만의 필치로 변화시킨 경우가 있다.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전하는 《大東書法》에 실린 김인후의 모각 필적 <送別詩>(그림11-1)가 바로 그런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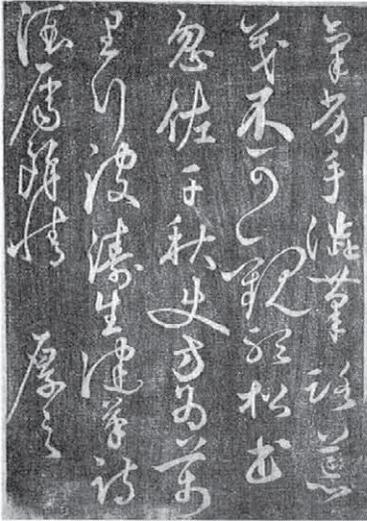


그림11-1. 김인후, <送別詩>, 탁본
50.4×33.6cm, 《大東書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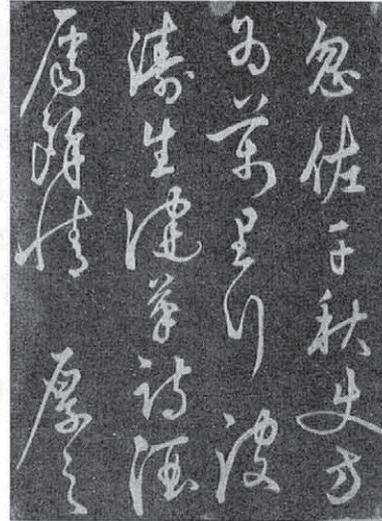


그림11-2. 김인후, <送別詩>, 탁본
38.7×25cm, 《金石清玩》.

“忽佐千秋使”로 시작하는 이 필적은 千秋使를 보좌하여 명나라에 사신 일행으로 떠나게 된 벗을 위해 김인후가 써준 오언절구의 전별시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자기 천추사를 보좌하여
만리 길을 떠나게 되었구려.
거센 파도가 웅건한 붓에서 일어나리니
시와 술에다 남은 흥취 부치리라. 후지.44)

서장관으로 사행을 가게 된 벗이 훌륭한 문장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44)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忽佐千秋使, 方爲萬里行, 波濤生健筆, 詩酒屬餘情. 厚之.”

마음을 담았다. 탁본 면 3행부터 시작하는 이 필적은 말미에 김인후의 子厚之가 찍어있어 김인후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 말미에 ‘聽松書’라 찍어있는 앞의 두 줄은 成守琛의 필적이다.⁴⁵⁾ 김인후의 <송별시>와 동일한 내용을 새긴 모각 필적이 《金石清玩》에도 한 면에 단독으로 실려 있다(그림11-2). 《대동서법》에 실린 필적에 비해 한 줄이 더 늘어난 것 빼고는 똑같은 필치를 보인다. 《금석청완》은 趙涑이 17세기 중반경 제작한 탁본 서첩이므로, 《금석청완》에 실린 김인후의 <송별시>는 《대동서법》본의 필적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필적은 당시 유행하던 송설체풍의 행서에 원나라 선우추 서풍을 결합했던 성수침 등 바로 앞선 세대의 필법이 보인다. 특히 왼쪽으로 빠져 내리는 사선의 掠劃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명나라 張弼의 초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김인후의 행초서는 전래의 조맹부와 선우추의 행서풍을 기반으로 장필의 초서 획법을 가미한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김인후는 22세 되던 1531년(중종 26)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10년이 지난 1541년(중종 36)에 그는 사마시에 같이 합격했던 同年 7명과 한 자리에 모여 契會를 가졌다. 당시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 장면이 담긴 그림을 제작하였는데, 바로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이다.⁴⁶⁾ 참석자는 鄭惟吉, 閔箕, 南應雲, 李澤, 李樞, 金麟厚, 尹玉 등 7인이었다.

계획도의 상단에는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를 전서로 쓰고, 바로 아래에는 10년만에 모임을 갖는 소회를 읊은 김인후의 題詩(그림12)가 초서로 찍어있다.

45) 필자의 이전 연구(유지복, 앞의 논문, 2015, pp.281-282)에서는 앞면에 이어지는 두 줄의 필적을 김인후의 필적으로 잘못 보았다. “病中氣劣手澁 筆路荒茂不可觀 聽松書.”로 구두를 떼 성수침의 필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수정하는 바이다. 앞면에 실린 “山上有山歸未得”으로 시작하는 唐 孟暹의 칠언절구 「閑情」을 쓴 필적 역시 성수침의 필적이므로 오류를 바로잡는다. 더불어 《大東書法》의 앞면에는 「大東書法目錄」이라 하여 작품을 쓴 서예가의 명단이 생몰년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실린 작품을 보면 목록의 순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수록 작품이 목록에 실린 서예가의 필적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46)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획도>의 전체 도판은 국립광주박물관 편,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중보판), 필암서원, 2020, p.29 참조. 계획도의 전체 크기는 세로 103cm에 가로 61cm이다. 맨 위의 篆額과 題詩 글씨 부분은 계획도 전체 길이의 1/4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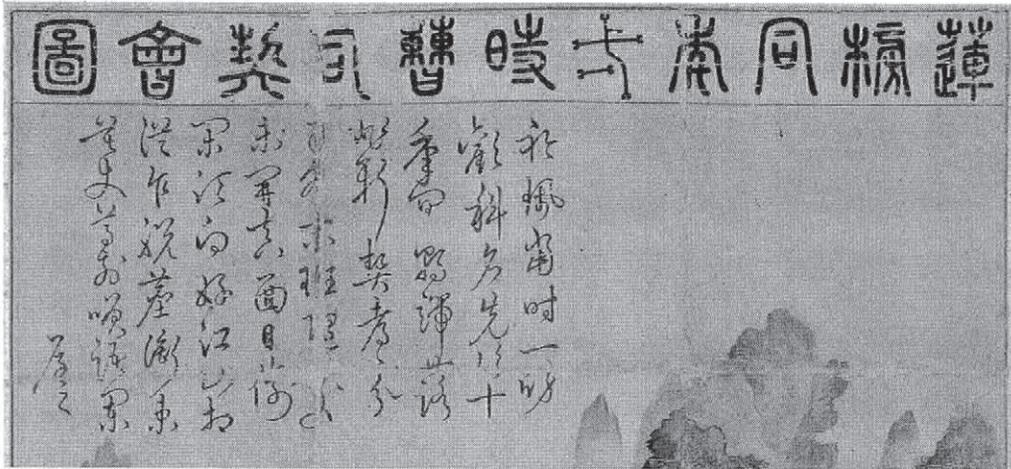


그림 12. 김인후,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題詩 부분, 1542년경, 국립광주박물관.

옥패 차던 당시에 同榜이라 기뻐더니
 십년 새 앞뒤 이어 과거 급제 하였네.
 조정에서 한 길 가니 새로운 모임 아니지만
 도성 아래 관사가 달라 각각 말단이라네.
 처소에서 진면목을 펴지 못했으니
 한가한 틈을 타 좋은 강산 찾았네.
 서로 만나 세속의 속박 잠시나마 벗었으니
 술동이 앞에 두고 우스개소리 막지나 마소⁴⁷⁾

이들은 1531년 진사시에 함께 합격하였다. 그 후로 십 년이 지나는 동안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서로 소속된 관사가 달라 얼굴 보기가 어렵고 아직은 말단의 자리라 진면목을 펴기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잠시나마 환로의 속박을 벗어나 한적한 자연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회포를 푸는 장면이 정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계획도 하단에는 모임에 참석한 동료 7명의 관직명이 써어있다. 당시 김인후의 관직은 弘文館正字였다. 김인후는 1541년(중종 36) 10월에 홍문관 정자가 되었고, 이듬해 7월에 홍문관 著作으로 자리를 옮겼다. 따라서 이 계획도는 1541년 10월에서 이듬해 7월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7) 金麟厚, 『河西全集』 권10, 「辛卯蓮榜曹司契會軸」, “衿佩當時一榜歡 科名先後十年間 朝端共路非新

계회도에 남긴 제시 글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김인후의 초서에 비해 매우 단아하다. 대체로 둥근 圓筆로 운필하면서 왼쪽으로 빠져 내리는 사선이 길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앞서 다룬 모각 필적 <송별시>에서 구사했던 획법과 유사하다. 그런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인후의 초서는 그가 쓴 <초서천자문>처럼 매우 분방한 운필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계회도에 쓴 제시 글씨는 이와 달리 단아하면서 정제된 필치를 보인다. 계회의 장면을 그린 제한된 공간 안에 제시를 써야했기 때문에 평소 구사하던 초서와 달리 절제된 형태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글씨는 동시기에 활동한 師任堂 申氏(1504-1551)와 아들 李瑀, 그리고 김인후와 가까운 해남에서 활동한 白光勳(1537-1582)·白振南 부자의 간결하면서 단아한 초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들에 비해 김인후의 초서가 다소 세장한 결구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초서의 단아하고 간결한 획법이 김인후의 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16세기 초서 서풍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맨 위에 전서로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라고 쓴 篆額 글씨의 서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바가 없으나, 당시 열렸던 계회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16세기 전서 명필 南應雲(1509-1587)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남응운은 당대의 명필 韓濩의 해서와 함께 花潭先生神道碑銘(1585)의 전액을 썼고, 역시 해서 명필 宋寅과 함께 工曹判書尹思翼神道碑銘(1570) 등에 전액 글씨를 남겼다.⁴⁸⁾ 앞으로 남응운이 쓴 전서 필적과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에 쓴 전액과의 비교가 뒤따라야 하리라 생각한다.

IV. 초서를 통한 逸氣의 표출

김인후의 모각 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은 <草書千字文>(그림 13)이다. 1장에 2면씩 새긴 목판 28장과 말미에 북송 陳師道の 오언율시를 새긴 목판 2장을 합쳐 모두 30장의 목판이 소요되었다. 목판 실물은 현재 필암서원에 보관되어 있다.⁴⁹⁾ 인출한 목판본은 각 소장처에 따라 千字文, 草千字文, 河西草法, 湛

48) 남응운이 한호의 해서와 함께 쓴 전액 글씨는 이밖에 草堂許曄神道碑銘(1582), 領議政洪暹神道碑銘(1586), 兵曹判書丁玉亨神道碑銘(1584) 등이 있고 송인과 함께 전액 글씨로 信古堂盧友明神道碑銘(1577), 荒山大捷碑(1577) 등이 있다.

翁筆帖, 湛齋筆法, 河西先生筆帖, 河西帖 등 후대에 붙인 다양한 표제가 붙어있다. 양각으로 새겨진 초각본을 모본으로 후대에 재판각된 음각본도 전하고 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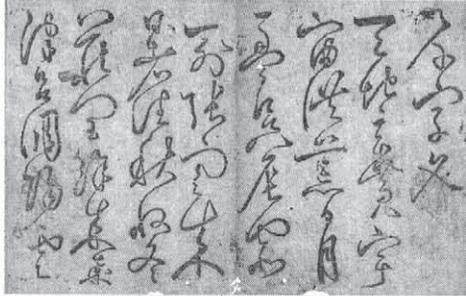


그림13-1. 김인후, <草書千字文> 1·2면, 1537년, 목판본.



그림13-2. 김인후, <草書千字文> 목판, 25.0×66.1cm, 필암서원.

마지막 목판에는 “가정 정유년 여름 4월에 河西子는 仲獻을 위해 蓮臺庵에서 쓴다. 이날은 바로 우리나라 풍속의 燈夕日이다[嘉靖丁酉夏四月, 河西子爲仲獻書于蓮臺庵, 乃國俗燈夕也].”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인후가 28세 되던 1537년 4월 초파일에 순창 剛泉寺에 달린 암자 蓮臺庵에서 치 초서천자문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연대암은 임란 때 소실되어 없어졌지만 장성 본가와 가까운 천년 고찰로 김인후가 즐겨 찾던 장소였다.⁵¹⁾

김인후가 연대암에서 완성한 이 초서천자문은 仲獻을 위해 썼다. 그러나 중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仲’자가 둘째를 의미하는 말로 으레 쓰이고 초서천자문을 쓴 1537년은 차남 從虎가 태어난 해여서 김인후가 차남 宗호에게 초서천자문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宗호의 자는 季義로 중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장남인 從龍은 1524년생으로 이미 열네 살이어서 역시 관련이 없다. 다만 장남 宗룡의 아들 이름이 仲聰이라 중충을 위해 썼을 가능성도 있다. 『蔚山金氏族譜』에는 중충의 생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짐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인후는 열다섯의 나이에 장남 宗룡을 보았다. 따라서 宗룡이 열넷의 나이에 아들 중충을 보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김인후 초서천자문의

49) 1998년에 전남대학교 문헌정보연구소에서 조사한 목판의 개수는 모두 20판으로 조사됐다. 송일기, 앞의 책, p.79.

50) 김인후의 음각 <초서천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千字文》(古4478-31)과 고려대학교 소장 《河西先生千字文》(육당 C13 A38) 등이 전한다. 모두 28장의 목판에 새겼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1937에 발행하고 平北 寧邊郡 妙香山 普賢寺 大藏殿에서 인쇄했다고 적힌 판권지가 있다.

51) 金麟厚, 『河西全集』 권4, 「次孤峯韻贈僧」; 권3, 「贈靈雲師」.

증여 대상에 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黃胤錫(1729-1791)은 16세기 조선 서단에 큰 영향을 미친 명대의 서예가 張弼(1425-1487)의 <초서천자문>을 보고 글을 남겼다. 이에 따르면 장필의 <초서천자문>은 李震休(1657-1710)가 새겨 간행한 것으로, 그의 초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온 나라의 서가들이 휩쓸리듯 그의 글씨를 따랐고, 김인후와 성수침 같은 제현조차도 황망히 이 글씨를 즐겨 썼다고 하였다.⁵²⁾ 또한 김인후의 <초서천자문>은 장필의 <초서천자문>을 본받은 것이라고까지 하였다.⁵³⁾

김인후와 장필의 <초서천자문>을 비교해보면 <표2>와 같다. 둘 다 대체로 둥근 원필의 분방한 운필을 보인다. 왼쪽으로 빠져 내리는 약획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자형도 한 사람이 쓴 듯 매우 유사하다. 각각 모각본과 필사본의 차이가 있음에도 거의 같은 필치로 씌어있다. 장필의 세로획에서 보이는 파동세가 김인후에게서는 절제된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다를 뿐이다.

16세기 초에 장필의 초서를 감상한 문인들은 그의 글씨에 대해 “몇 년 묵은 교룡이 따리를 틀고 있는 듯하고 바람과 우레가 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듯하다.”라고,⁵⁴⁾ “바람과 구름같은 변화를 헤아릴 수 없고 戈法이 삼엄하여 귀신도 엿볼 수 없다.”고 하여 狂草로 유명했던 당 張旭의 솜씨를 능가한다며 극찬하였다.⁵⁵⁾ 기묘 제현의 뜻을 계승한 김인후이기에 방일한 서풍을 멀리하고 근정한 서풍을 따를 것이라 예상되지만 초서에서는 유독 장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바로 앞선 세대로 기묘명현을 대표하는 金絳(1488-1534)조차도 광초에 가까운 분방한 서풍을 구사한 것을 보면, 16세기 초반 장필을 비롯한 명대의 초서풍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며 확산되었는지 알 수 있다.

52) 黃胤錫, 『頤齋遺藁』 권12, 「書張東海千文法帖後」, “右皇明張東海汝弼千字草書 本國驪興李震休伯起所識而傳者 蓋嘉靖間人 而書亦及其時東來 一國書家靡然宗之 如河西聽松諸賢 猶駸駸游戲於斯 而孤山蓬萊尤其酷好而與化者也。”

53) 黃胤錫, 『頤齋遺藁』 권35, 甲辰年(1784) 10월 26일 조, “朴上舍光淳體素來 示明人張東海汝弼草書千字文 申洙[景潛父]所摸 卽聽蟬李震休所刻行 而河西草千字 實法此也。”

54) 崔慶昌, 『孤竹遺稿』, 「題張東海書」, “張公遺墨老蛟蟠 彷彿風雷起壁間 直恐六丁來取去 紫皇高掛玉樓看。”

55) 趙綱, 『龍洲遺稿』 권2, 「題張汝弼草書卷」, “誰借公孫大娘舞 遠過張旭楚人奇 風雲變化誰能測 戈法森嚴鬼不窺。”

<표2> 김인후와 장필의 <초서천자문> 비교

	김인후	장필		김인후	장필		김인후	장필
黃			荒			辰		
翔			調			廊		
列			收			冬		
盈			麗			圓		
號			年			崑		
						也		

2007년에 김인후와 필암서원을 주제로 기획된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에서 <連韻詩文>이 처음 소개되었다. 가로 145cm의 긴 장지에 매우 감각적인 필치로 쓴 초서와 행서인데, 모두 樂聖堂, 水雲亭, 風樹堂을 소재로 지은 시이다. 낙성당을 비롯한 세 정자는 曹禧(1490-1564)가 고향 순창에 조성했던 개인 정자이다.⁵⁶⁾ 조희의 본관은 昌寧으로, 전남 담양 雲梯 출신이다. 자는 仲慶·慶原이고, 자신의 정자 이름을 따 水雲軒이란 호를 썼다. 운제에서 대대로 살다 부친을 따라 전북 순창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무장 현감, 고부 군수, 나주 목사, 성주 목사, 동래 부사 등 여러 곳의 지방관을 거쳤다.

이 필적은 1549년경 조희가 성주 목사로 떠나기 직전에 鄭士龍(1491-1570), 申潛(1491-1554), 김인후를 자신의 정자로 초대하여 함께 어울리며 지은 시이다.

56) 이 필적은 曹禧의 후손되는 현곡 조대섭 소장본으로, 현재는 담양 미암박물관에 기탁되어 보관중이다. 자료 열람에 도움을 준 후손 조상섭 선생과 미암박물관 노기춘 관장에게 감사드린다.

정사룡 3수, 조희 1수, 신잠 1수, 김인후 2수 등 4인의 시 7수가 씌어있다.

이 필적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시이므로 ‘연운시문’이란 작품명은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인들이 명승이나 누정과 같은 일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의 승경을 읊은 시를 ‘題詠’이라 한다. 김인후를 포함한 4인이 조희의 정자에 모여 시를 지었고, 樂聖堂을 소재로 지은 시가 가장 먼저 나온다. 또한 7수의 시 가운데 4인이 공통적으로 남긴 시는 낙성당을 소재로 지은 시이다. 따라서 이 유목의 명칭을 ‘樂聖堂題詠’으로 부르는 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작품명을 <樂聖堂題詠>으로 개칭하고자 한다. <낙성당제영>에 실린 시들은 정사룡, 신잠, 김인후의 문집에도 각각 실려 있다. <낙성당제영>에 쓰인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樂聖堂題詠>의 내용

순번	시제	작자	출전
1	題樂聖堂	鄭士龍	『湖陰雜稿』 권4, 「星牧曹仲慶所居三詠」
2	題水雲亭	鄭士龍	『湖陰雜稿』 권4, 「星牧曹仲慶所居三詠」
3	題樂聖堂 (차운 정사룡 題樂聖堂)	金麟厚	『河西全集』 권10, 「樂聖堂」
4	무제 (차운 정사룡 題樂聖堂)	申潛	『高靈世稿續編』 권1, 「次樂聖堂韻」
5	무제 (차운 정사룡 題樂聖堂)	曹禧	
6	題風樹堂	鄭士龍	『湖陰雜稿』 권4, 「星牧曹仲慶所居三詠」
7	무제 (차운 신잠 題風樹堂)	金麟厚	『河西全集』 권8, 「和靈川風樹堂韻」

<낙성당제영>에 맨 처음 등장하는 시는 정사룡의 「題樂聖堂」이다. 시구 중 “오류문 앞에서 버들개지 흔들리네[五柳門前絮罷時].”라는 늦봄의 정경을 묘사한 시구가 있다. 그리고 이 시를 포함한 정사룡의 시 3수는 문집의 편집체계상 1549년작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희의 정자에 4인이 모인 것은 조희가 성주 목사로 가기 전인 1549년 늦봄으로 추정된다.⁵⁷⁾ 1549년 봄, 정자의 주인 조희는 니주 목사에서 파직된 뒤 고향 순창으로 내려와 울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인후는 1년 전부터 두 부모를 모시고 순창 점암촌에 들어가 우거하고 있었다. 정사룡은 실록청당상을

57) 4인이 조희의 정자에 모인 시기에 관해서는 유지복, 앞의 논문, p.288 참조.

사직하고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다. 신잡은 1년 전부터 순창과 가까운 태인의 현감으로 있었다. 따라서 성주 목사 부임을 앞둔 조희는 주위에 있는 이들 세 명을 자신의 정자로 초대하여 서로 어울리는 여가에 7수의 제영을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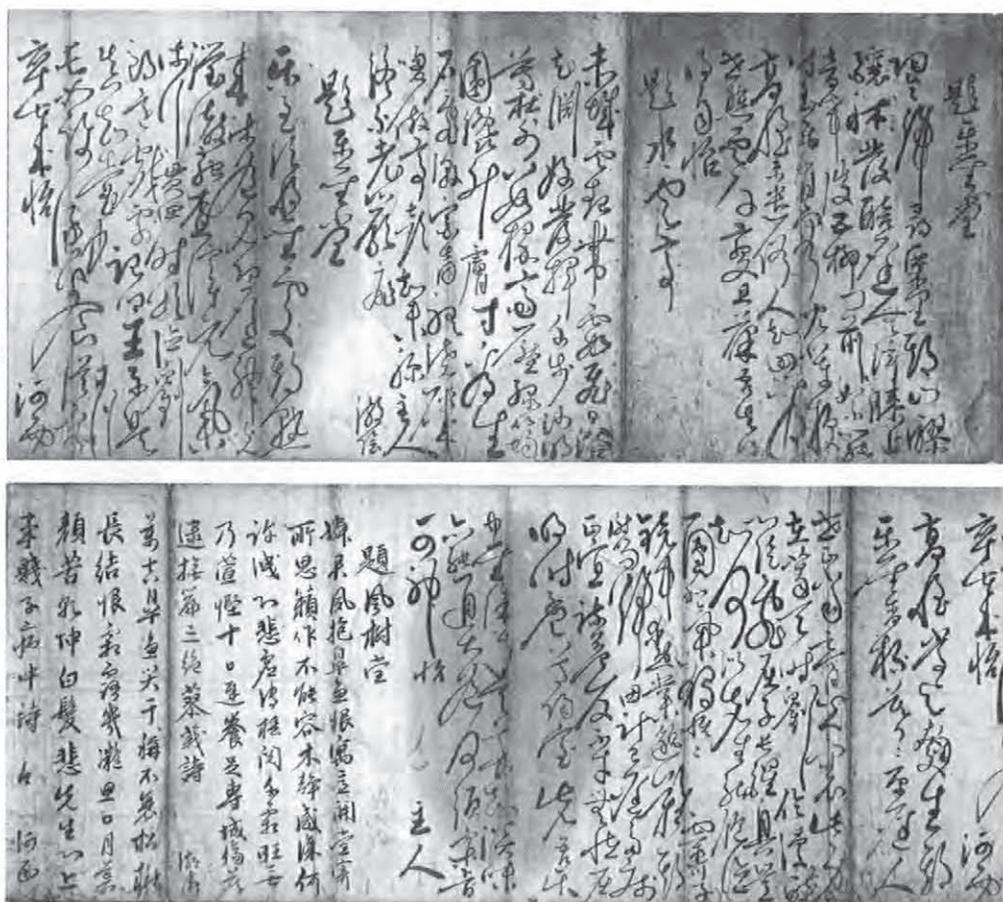


그림 14. 김인후, <樂聖堂題詠>, 1549년경, 종이에 먹, 31.8×145cm, 조대섭(미암박물관).

<낙성당제영>(그림14)의 체제를 보면 7수의 시 앞에는 시제를 쓰고, 시가 끝나는 부분에는 작자의 호를 써놓았다. 앞의 5수는 초서로 썼고 뒤의 2수는 행서로 썼다. 그 필치로 볼 때 초서도 한 사람이 쓰고 행서도 한 사람이 써서 두 사람이 각각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 초서와 행서 모두 상당한 수준이다. 그런데 앞쪽의 초서는 매우 분방한 운필로 역동적인 필치를 보인다. 이를 김인후의 <초서천자문>과 비교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김인후의 <초서천자문>과 <낙성당제영> 글씨 비교

	초천자	낙성당		초천자	낙성당		초천자	낙성당
神			處			當		
堂			道			身		
眞			難			尊		
知			樂			西		
飛			雲			聖		

길게 휘며 내리긋는 세로획, 왼쪽으로 빠져 내리는 사선의 강조, 점과 획을 연결시키는 방식과 서로 유사한 자형 등에서 한 사람이 쓴 듯 매우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필적은 그동안 추정에 그쳤던 김인후의 진적임이 확실해 보인다. <초서천자문>에서 보이는 김인후의 활달한 초서풍을 지금까지 그의 진적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낙성당제영>은 <초서천자문>과 더불어 김인후의 초서를 대표하는 필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성당제영>의 가장 끝에 쓴 행서 필적은 서풍으로 볼 때 행서에 능했던 정사룡의 필적으로 추정된다. 정사룡의 행서 필적이 거의 없어 글자끼리 대조가 어렵지만,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槿墨》에 실려 있는 필적으로 1523년에 李賢輔에게 써준 <龔巖愛日堂詩>와 비교하면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⁵⁸⁾

58) 정사룡의 <龔巖愛日堂詩> 도판은 예술의전당 편, 『韓國書藝二千年』, 예술의전당, 2000, 도90 참조. <농암에일당시> 원문은 李賢輔, 『龔巖集』 권5 附錄 2, 「龔巖愛日堂詩」에 '次韻'이란 시제로 수록되어 있다.

V. 결론

김인후는 기묘사림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도학자였다. 1549년에 그가 쓴 <己卯諸賢手筆序>는 기묘사화에 연루되었던 명현들의 시문첩에 쓴 서문이다. 그 글에는 周敦頤가 주창한 ‘文以載道’에 대해서 ‘문’이 무성해야 ‘도’의 깊은 경지를 볼 수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는 ‘도’의 표현수단으로서 ‘문’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인들에게 ‘書’는 줄곧 말단적인 기예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문장이 도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서’ 또한 ‘문’과 더불어 도를 실현해나가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했다. 김인후가 글씨의 효용을 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묘제현수필서>가 기묘제현이 지키고자 했던 도의 가치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載道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은 글씨 또한 도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더욱이 김인후의 <기묘제현수필서>가 제현들의 필적 중 유독 후모본으로 모사되어 후대에 전해졌다는 점은 그의 글씨에 대한 경모가 재도적 기능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각 필적 《武夷九曲歌帖》은 주희의 「무이구곡가」와 이를 해설한 김인후의 저작시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초기의 도학자들은 「무이구곡가」를 도학적 세계의 형상화로 보려 하였다. 김인후 역시 「무이구곡가」를 학문에 나아가고 도에 들어가는 차제로 파악하였다. 《무이구곡가첩》은 제자이자 사위인 趙希文과 梁子澂에게 도학의 실천을 바라며 써준 필적이다. 도를 실현할 곳은 바로 일상이라는 점을 역설함과 동시에 절의를 위해 희생한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하길 바라는 의지를 담았다.

《무이구곡가첩》의 해서 필적에는 안진경과 유공권의 필법이 가미되어있다. 그가 부친을 위해 쓴 <金齡墓碣銘>에서는 그런 점이 더 두드러진다. 다만 16세기 초반의 도학자들이 위진으로의 복고를 주장하며 왕희지의 글씨를 전범으로 여겼듯이 김인후의 해서에서도 안진경의 획법이 부분적으로 가미되어있을 뿐, 전체적인 자형은 왕희지 해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한 16세기 도학자들은 주희가 경계한 필법을 염두에 둔 듯 글씨를 씌에 있어 순간의 흥취와 외형의미를 경계하였다. 이는 글씨를 쓰는 행위 역시 도학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본 것으로, 김인후 해서의 엄정한 필의에서 그런 태도가 잘 드러난다.

인종이 1543년 왕세자 시절 스승 김인후에게 <墨竹圖>를 하사했다. 김인후가 이를 보고 느낀 바를 시로 표현한 필적이 <仁宗墨竹圖題詩>이다. 김인후의 제시는 훗날 성대한 덕치를 베풀 인종과 이를 굳은 절의로 떠받들 신하를 그린 마음이 담겨 있다. 제시의 글씨에는 유학의 실천적 도덕 강목으로서 군신 간에 지켜야 할 의리와 왕도정치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응집되어있다. 이는 앞선 필적에서 봤듯이 김인후가 서를 통해 도를 구현하고자 했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김인후의 여러 필적 중 단연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은 1537년에 쓴 <草書千字文>이다. 김인후가 기묘제현을 계승한 상징적 인물이기애 방일한 서풍을 멀리하고 근정한 서풍을 따를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와 달리 그의 초서에서는 광초에 가까운 明 張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바로 앞선 세대로 기묘명현을 대표하는 金絳조차도 분방한 초서를 구사했다는 것은 16세기 초반 명으로부터 전래된 초서풍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인후의 초서에서는 오히려 광초에 가까운 분방한 운필이 더욱 드러난다. 그의 글씨에 대해서 ‘奇崛’했다는 추記의 기록이 있다. 그의 초서에서 보이는 기발한 필력과 비동하는 듯한 기상을 특징적으로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인후는 휘호하는 장면을 전쟁터의 싸움에 비유한 「筆戰」이란 시를 남긴 바 있다. “문성장군[붓] 담력과 기세가 하도 거칠어 신기를 달려 만 개의 창을 쥐으려 하네. ... 성낸 기운 씩씩한 장군의 모습으로 한원에 달려들어 휘두르고 꾸짖누나. 어질어질 확확 고래 봉새 튀어나와 비늘 같기 곤두박질하다 다시 치솟네.”라고 하여 전장의 장수와 같이 필세의 기상을 중시하였다. 이는 그가 초서에 있어서는 고법의 전형인 이왕의 필법보다는 분방한 흥취가 드러나는 張旭과 懷素의 정신을 따른 것이다. 그의 초서작에서 보이는 험걸찬 흐름은 초서를 통해 표출하고자 했던 일탈의 기상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에 처음 소개된 <樂聖堂題詠>은 曹禧가 순창의 개인 정자에 김인후, 정사룡, 신잠을 초대하여 어울리며 지은 제영시를 초서와 행서로 쓴 필적이다. 이들의 만남은 조희가 성주 목사로 가기 전인 1549년 늦봄이었다. 김인후는 1548년부터 두 부모를 모시고 순창 점암촌에서 우거하고 있었고, 정사룡은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고, 신잠은 순창과 가까운 태인 현감으로 있었기에 당시의 모임이 가능했다.

<낙성당제영>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각 초서와 행서를 썼다. 앞쪽의 초서는 매우 분방한 운필로 역동적인 필치를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 필적을 누가 썼는지

구체적인 분석 없이 김인후의 필적으로 전칭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의 소장처를 찾아가 작품을 실견하였고, 김인후의 <초서천자문>과 비교하는 검토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점과 획을 연결시키는 방식과 유사한 자형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발견하여 김인후의 진적임을 확증하였다. <초서천자문>에서 보이는 김인후의 활달한 초서풍을 지금까지 그의 진적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낙성당제영>은 목판본 <초서천자문>과 더불어 김인후의 초서를 대표하는 필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김인후의 글씨 중 그의 서풍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글씨는 초서이다. 그는 바로 앞선 세대인 김구 대에 전래되기 시작한 명대의 개성적인 초서풍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명 장필의 서풍을 적극 수용하였다. 장필의 자형과 흡사한 <초서천자문>에서 그의 초기 수용 양상이 잘 드러난다. 그로부터 12년 뒤의 필적 <낙성당제영>은 따라 쓰기에 급급했던 초기 수용 시기에 비해 현결찬 자태의 독자적 서풍으로 변모되어 있다. 바로 뒤 세대인 양사언, 황기로, 백광훈 등의 초서 명필이 속출하며 16세기는 조선서예사에서 초서로 일대 성행을 이룬 대표적 시기였다. 특히 황기호가 장필을 수용하여 조선적 초서풍의 중요한 국면을 이루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인후의 초서는 외래 초서풍의 조선적 초서풍으로의 토착화를 보여주는 시발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노자老子の 리더십

초헌관 민영돈(조선대 총장)

1. 필암서원 확연루廓然樓를 지나며

탁 트여 텅 비어있다는 확연廓然은 어디에서 왔을까?

• 벽암록碧巖錄에

양무제梁武帝(464~549): 무엇이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진리요?

달마대사達摩大師(?~528): 행하니 비어 아예 성스럽다고 할 것조차 없습니다.(확연무성廓然無聖)

양무제: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요?

달마대사: 모르겠습니다.

• 정자程子(송나라 유학자 정호, 정이 형제): 군자의 학문은 크게 공정하다.(확연대공廓然大公)

• 노자老子(BC 570) 도덕경道德經 4장: 도는 깊어서 쓰고자 하면 채워져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도충이용지혹불영道沖而用之或不盈)

2. 노자는 어떤 지도자가 성인지도聖人之道를 갈 것이라 하였을까?

노자의 도덕경 제17장은 기원전 중원에서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의 왕이 새겨들어야 할 격언이었을 터인데, 2500년 이상을 전해 내려 오며 현대사회에서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나 부서에서, 또 일상생활에서도 깊이 생각해볼 만한 명문이다.

태상 하지유지太上 下知有之: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것은 아는 지도자이고,

기차 친이예지其次 親而譽之: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며,

기차 외지其次 畏之: 그 다음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기차 모지其次 侮之: 그 다음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지도자이다.

상상은 윗사람, 하하는 아랫사람을 뜻하

는 바, 윗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 비교 하였는데, 최상급 지도자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의아스럽다. 도덕경은 서두에 알듯 말듯한 문구를 던져 놓고 시작하여 마지막에 그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문구로 마무리하는 형식의 문장이 많다. 17장도 마지막 구절이 ‘태상太上’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공성사수 백성개위아자연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공을 이루고 일을 해내고 나면 백성들 모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라 여기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하되 지도자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부심과 행복감을 주는 지도자가,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진두지휘하여 공을 세우고 위대함을 보여주며 칭송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보다 한 수 위라는 뜻이다.

겸손한 리더십!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부모도 자식들에게 키운 공덕을 자랑하고 은혜 갚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태상’의 리더십은 바로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어려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왠지 불안하였던 것처럼 부모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힘이였다.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키워보니 아이들 모르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걱정하게 되는 것

을 느끼면서 안방에 계셨던 부모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살피는 바로 그 ‘태상’이었다.

노자는 카리스마의 지배 권력보다 따뜻하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세를 낮추라고 하였다. 큰 나라일수록 작은 나라를 감싸고, 힘이 있다고 싸워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적국 병사들의 목숨까지 소중히 하라는 인본주의자다.

도덕경은 저작되었던 시대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안의 할아버지나 사회의 어른들이 삶의 지혜를 들려주시는 듯 무겁지 않고 편안하다. 그래서 노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해본다. 드넓은 중원 각처에서 대대로 흘러오는 격언들을 모아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이 하얀 백발에 흰 수염을 기른 신선처럼 보이는 노인이라 노자老子라 전해오게 된 것은 아닐까? ...

지금 우리 주변에도 원로元老로 예우 받는 많은 노자가 있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있다. 누구나 세월이 가면 노자가 되어 후진들의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탁 트여 비어 있는 확연廓然에서 깊고 깊은 태상太上의 도道를 느껴보자.

인촌仁村선생의 청년정신

리훈(인류학 박사)

필자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인촌선생의 청년정신입니다. 선생께서 펼치신 위대한 업적들이 거의 25세 전후에 실천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시 여겼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청년의 의미가 생리적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정신과 과감한 실천력과 융합력에 중점을 둔 것임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 어려운 일제침략 36년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오직 실천적 봉사정신으로 민족과 건국을 위해 바친 인촌선생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은 과히 초인적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중앙학교, 동아일보, 보성전문(현 고려대학교), 경성방직 등의 설립이 거의 30세경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아무리 재산가의 자손이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청년 인촌의 순수한 애국심과 열정이 도탄에 빠진 민족과 나라에 집중되어 분골쇄신했기에 가능했다는 생

각을 해봅니다.

특히 부모님과 가족의 신뢰가 그러했고, 와세다 대학을 마치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친구들과 지속적인 토론을 융합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나아가 일제 침략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배워야 한다는 일념에서 민족교육과 계몽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자각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청년 인촌의 이러한 신념과 철학은 인촌 특유의 인간관계와 사유思惟 그리고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실용주의와 오직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과 열정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청년 인촌선생은 오직 민족의 자주적인 정신과 역량을 길러 침략자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민족적 사명을 위해 묵묵히 그 위대한 길을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족자강 정신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중앙학교와 보성전문 그리고 동아일보와 경성방직을 설립해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에 크나

큰 동력을 촉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거의 말살되어가는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청년 인촌선생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청년 인촌이 펼친 그간의 민족과업들을 살펴보면 20대에 거의 완벽한 준비와 설계로 실천되었습니다.

청년 인촌의 위대한 업적들은 역사가 지속될수록 청사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청년 인촌의 위대한 결단력과 실천력은 과히 초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애국심이었으며 당시 놀라운 재산을 예단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조국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애민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 『나라와 민족의 선각자 인촌 김성수』에서 가려 뽑음

도문상종道文相從하며 상호간에 오고감

우리고을 장성 하서河西선생 후손, 필암서원 유림과 충청도 우암, 동춘당 두 분 선생의 후손 또는 후학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서선생의 증손 형복 형록 형우 형지를 비롯하여 현손 기하와 외현손 이실지에 이르기까지 우암과 동춘을 자주 찾았으며, 우암 동춘당을 비롯 장성공 송시도, 우암 선생의 9대손 연재 송병선선생에 이르기까지 필암서원에 남기신 문장과 업적은 대단히 화려하다.

남간사 도유사 송준빈님을 비롯 문중대표 몇몇 분들의 방문이 몇 차례 있었는데 하면 최근 연재선생 종손 송영문, 문충사 유림대표 전재환님을 비롯 3십 여인이 우리 필암서원을 다녀간 바 있었다.

필암서원은 8년 전 본인이 김인수 도유사 김진산 별유사와 함께 경기도 화성 무봉산 자락에서 거행된 우암선생 강학비제막식에 참여하여 도의道義적 교우관계를 다졌으며, 지난 4월 29일자壬子일 현 도유사 김성수님의 계획에 따라 (박병호

원장 송영래 충청도장의 김동수 전북도장의 불참) 본손 김인수 전도유사 김진산 별유사를 비롯 선병국 전남도장의 김한식 김만원 이충원 군집강님들과 9시에 출발 11시에 대전 우암 사직공원 남간사에 도착하니 송준빈 도유사의 4인이 우리 일행을 맞아주었다. 일행 모두는 준비된 예복을 갖추고 사당 뜰아래 서립하여 본인의 창홀에 따라 전도유사 김인수의 분향과 헌성에 이어 재배로 알묘의 예를 마쳤다. 남간사는 우암 송시열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고 선생의 제자 석곡 송상민石谷 宋尙敏과 수암 권상하遂菴 權尙夏 두 분을 동·서벽에 모셨다. 이직당以直堂은 그 강당이며 인함각忍含閣 명숙각明淑閣 심결재審決齋 건뢰재堅牢齋는 부속 건물이며 난간정사와 기국정杞菊亭은 외삼문 가까이 있다.

13시경에 동춘당 고택이 있는 송촌동 즉 동춘당 공원에 도착하였는데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온 종손 성진 도유사 송용순 종손의 셋째 총무 영진 아우 외 몇 분의 환영이 있었고 송준빈님의 제안으로 오찬

시간이 늦었다 하여 종중에서 준비한 오찬을 먼저 마치고 알묘의 예를 갖추기로 하였다.

오찬 후 동춘당을 모신 별문에서 도유사 김성수님의 분향과 헌성 그리고 일동재배로 알묘의 예를 마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동춘당을 비롯 고택과 사당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새로운 사실은 공원 앞에 펼쳐진 많고 많은 땅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바쳤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15시경에 동구 동부로 73번길 44(용문동)에 위치한 용동龍洞서원에 도착, 연재선생의 현손 송영문 이사장 전재환님을 비롯 수강생 몇몇 분들의 환영을 받았다.

일제히 예복을 갖추고 별유사 김진산님의 분향 헌성 그리고 참제원 일동재배로 알묘례를 마친 뒤 강당에 들어서니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분의 환영사가 있었고 우리 도유사 김성수님의 답사가 있었다. 본 용동서원의 문충사는 선생의 시호 문충文忠을 인용하여 현판한 것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자 음독순국

하신 연재 송병선선생과 역시 순국하신 선생의 아우 심석 송병순 두 분의 위패를 모셨으며 내삼문內三門의 이름을 성인문成仁門이라 한 것은 두 분 선생께서 나라가 망하고 군왕이 없는 세상을 살수 없다며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강당 이름을 명정당明正堂이라 한 것은 정성을 밝히고 의리를 바르게 지키라는 뜻을 담은 듯하며 동재와 서재가 있고 외삼문外三門 밖에 세워진 동상은 형제의 평소 우애를 표출한 듯하다. 16시 30분경 그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돌아오다.

우리는 은진 송씨들의 화려한 도학과 충절의 현장을 다녀온 이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생각하니 송씨들의 진정어린 친절과 한결같은 겸손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번 도유사의 주선으로 본손 대표님들과 집강執綱 모두가 함께하였다는 것에 크게 감사드린다.

2022. 04. 29. 09 ~ 18

참석자 : 김성수 김인수 선병국 박래호
김한식 김만원 김진산 이충원

중용 24장 지성여신 至誠如神

지성至誠의 도道를 구현한 사람은 세상일을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 국가가 장차 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며,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망스러운 재앙의 싹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길흉의 조짐은 산대점이나 거북점에도 드러나고, 관여된 사람들의 사지동작에도 드러나게 마련이다. 화나 복이 장차 이르려고 할 때, 지성의 도를 구현한 사람은 그 원인이 되는 좋은 것도 반드시 먼저 알며, 좋지 않은 것도 반드시 먼저 안다. 그러므로 지성至誠은 하느님과 같다고 할 것이다.

至誠之道 可以前知.
 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孽.
 見乎蓍龜 動乎四體.
 禍福將至; 善 必先知之;
 不善 必先知之
 故至誠如神.

- 도율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298~299쪽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파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 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 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근 교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추향제 올리고 정운염 초헌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
- 2017년 12월 4일 광주향교에서 17회 정기총회 후 조선대 이종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출처의리와 도학세계”란 주제로 강연
- 2018년 4월 5일 춘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정환담 학장이 “하서 사상의 사적맥락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강연
- 2018년 9월 22일 추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가 “유교에 대한 이해”란 논제로 강연
- 2019년 3월 21일 춘향제 올리고, 오세인 초헌관(전 광주교검장)이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의 역할” 강연.
- 2019년 7월 27일 집성관에서 김장수(동양문화학회 회장) “서명사천도 연구를 위한 발제”, 탁현숙(조선대 교수)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 고찰” 강연
- 2019년 8월 17일 우등사에서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박병호 원장), 종가 부조묘에서 종손과 종친 고유제
- 2019년 9월 17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김동원(전북대학교 총장)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강연
- 2019년 10월 23일 세계유산등재 기념비 제막식 축제
- 2019년 12월 9일 집성관에서 전북대 김유곤 교수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후의 사천지학의 구조와 성격” 강연
김재수 “서명사천도에 대한 관견” 강연, 하서 도학과 문학 33호 발간
- 2020년 10월 15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전 행사 축소 거행
- 2020년 10월 23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에 신형철 전 광주향교 전교
- 2020년 12월 하서 도학과 문학 34호 발간
- 2021년 3월 30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 허정(광주에덴병원장)
- 2021년 9월 26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 송준빈
- 2021년 11월 30일 집성관에서 학술강연하다. 김경호(전남대 교수), “하서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혼맥의 관계성과 호남학술의 부상” 김장수(동양문화학회 회장), “하서 선생과 덕계 오건 연구”를 발표하였다.
- 2022년 3월 15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에 민영돈 조선대 총장